

朝鮮時代 淸州地域 인물의 文集刊行과 그 의미

고수연^{*1)}

- I. 머리말
- II. 문집 간행 인물의 성격
- III. 문집간행 양상
- IV. 청주지역 관련 문집내용
- V. 맺음말

「국문 초록」

‘文集’은 개인의 모든 저작물을 모아놓았다는 점에서 역사학 자료로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문집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청주지역 인물 73명의 문집간행과 그 의미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먼저 저자를 출생연도별로 나누어 간행 인물의 성격을 검토해 본 결과 15세기 청주지역에서는 土姓보다는 移居土族을 중심으로 문집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또 문집을 남긴 73명 중 19세기 이후 출생인물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들 대부분은 老論계 인물이었다.

다음으로 문집 저자를 성씨별로 나누어 그 성격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청주지역에 세거했던 30개 성씨가 문집을 남기고 있는데, 南人계인 高靈申氏 15명이 문집을 남겨 가장 많이 남긴 성씨가 되었다. 다만 고령신씨의 문집 간행은 모두 20세기에 와서 이루어졌다.

* 영동대학교 교양융합학부 전임조교수

노론계인 順天朴氏가 두 번째로 많은 6건의 문집을 남겼다. 그러나 1명을 제외하고는 19~20세기 인물이며, 문집 역시 1건을 제외하고는 20세기 이후에 간행되었다. 노론계인 밀양박씨가 세 번째로 많은 5건의 문집을 남겼다. 그러나 인물 생몰년은 15~17세기로 비교적 이른 시기이며, 문집 간행도 17세기부터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청주 지역 출신 인물 73명의 문집간행을 시기별로 나누어 그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17세기부터 문집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18,9세기에는 노론계 인물의 문집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남인계 인물의 경우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문집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시기로는 1945년 이후 간행된 것이 57.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간행시기를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인물이 세상을 떠난 후 상당기간이 흐른 후 문집이 간행되었다. 따라서 원래의 시문이 상당수 유실된 상태로 편찬·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집에는 청주 지역과 인물에 관련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다.

먼저 문집에는 조선 시대 사족 거처의 필수요소로 통용되었던 八景과 九曲을 기록한 내용이 많았다. 또 지역사족들의 대표적 공간인 書院·祠宇나 樓·亭·堂과 관련된 기록 역시 문집에 자세하였다. 忠孝烈 인물의 경우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의병, 한말 절의인물 등이 다수 기록되어 있었다. 효열부에 대한 기록, 契會나 詩會에 대한 기록도 상당수 문집에 실려 있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 글은 기존 영남지역에 국한되어 검토되었던 문집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청주 출신 인물 73명의 문집의 목록화와 내용분석, 의미 부여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역 인물의 문집 간행이 지역사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문집을 간행한 인물의 성격이나 시기별 문집 간행 양상이 청주 지역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주

지역 인물의 문집에 지역 연구 자료로 유일하고도 다양하면서 자세한 기록이 매우 많은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 자료로서 문집이 가지는 중요성과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주제어 : 청주지역(淸州地域), 문집(文集), 노론(老論), 남인(南人), 지역사(地域史), 지역사 자료(地域史 資料), 팔경(八景), 구곡(九曲), 계회(契會), 시회(詩會)

I. 머리말

‘文集’은 넓은 의미로는 集部 가운데 총집류와 별집류의 책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선시대 한 인물의 저작을 모아 엮은 책을 가리킨다. 문집은 개인의 모든 저작물을 모아놓았다는 점에서 역사학 자료로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문집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지금까지 문집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시도되었다. 첫째, 개인 문집의 간행과 내용에 대한 검토이다.¹⁾ 이러한 연구는 역사학에서 보다는 국문학이나 서지학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별문집 연구를 통해 각 인물에 대한 생애와 문집의 문학적인 고찰이 이루어 졌다.

둘째, 조선후기 전체나 혹은 한 지역을 범위로 하여 문집이 간행

1) 유탁일, 「『性齋先生文集』 간행의 출판사회학적 분석」, 『한국민족문화』 3, 1990 ; 최호석, 「옥소 문집의 서지적 고찰」, 『국제어문』 36, 2006 ; 오항녕, 「尤菴 宋時烈 문집의 편찬과 간행」, 『한국사학보』 33, 2008 ; 김순희, 「李堦의 『松齋先生文集』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5, 2010 ; 정경훈, 「毅堂 朴世和의 문집과 문학 일고」, 『민족문화』 44, 2014 ; 김문식, 「규장각에 소장된 洪奭周의 필사본 문집」, 『규장각』 46, 2015.

된 양상을 검토한 연구들이다.²⁾ 유탁일은 『영남지방출판문화논고』(2001)에서 近畿南人の 문집이 영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간행되는데, 이는 영남 지방의 연대의식과 기호남인 실학파의 실용정신이 융합되어 일어난 결과라고 하였다. 신승운은 「유교사회의 출판문화」(2001)에서 현존하는 문집의 대부분은 조선후기의 저작인데, 이것은 영남지역 향촌사회에서 사대부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집 간행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설석규는 「조선시대 유교목판 제작 배경과 그 의미」(2005)에서 16세기의 정국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사람들에 의해 문집목판 제작이 촉진되었다고 보았다. 김명자는 「조선후기 안동의 문집간행 현황과 그 의미」(2007)에서 조선후기 영남 안동 지역은 각 문중이 생존전략의 하나로 문집을 간행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선후기 전체나 한 지역을 범위로 한 문집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영남지역에서 문집 간행이 가장 활발하였고, 그 계기는 士林세력의 성장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문집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지역을 범위로 하여 문집간행 양상을 검토한 논문의 경우 영남 지방에 그 연구가 집중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문집 간행 현황과 비교하지 않고 영남 지역의 문집 간행이 가장 활발하

2) 유탁일, 『영남지방출판문화논고』, 2001 ; 신승운, 「유교사회의 출판문화-특히 조선시대 문집편찬과 간행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9, 2001 ; 설석규, 「조선시대 유교목판 제작 배경과 그 의미」, 『국학연구』 6, 2005 ;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의 문집간행 현황과 그 의미」, 『조선사연구』 16, 2007 ; 김수진, 「조선후기 문집간행의 추이와 그 특징」, 『어문연구』 41, 2013 ; 황위주 외, 「일제강점기 전통지식인의 문집 간행 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 41, 2013 ; 손계영, 「조선후기 영남 문집 목판본 간행의 확산 양상에 관한 연구-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 2013.

였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둘째, 문집 저자나 문집 내용에 대한 연구 없이 문집의 간행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문집의 주체는 조선시대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문집의 내용은 그 지역의 인물·유물·유적·풍광 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문집은 그 내용이 지역 연구 자료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집내용 분석을 시도한 한 연구는 없었다. 넷째, 문집의 연구가 주로 서지학이나 국문학에서 다루어져 문집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영남지역이 아닌 호서지역의 중심지인 청주라는 한 지역의 문집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청주지역에서 간행된 문집만이 아닌, 청주지역 출신 인물이 남긴 문집을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인 문집연구에서 알기 어려운 부분 즉 문집을 간행한 청주지역 인물의 성격, 학파별·가문별 문집 간행의 성격, 청주라는 한 지역의 문집 간행의 양상, 지역 사료로서의 문집의 내용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청주지역 인물의 문집 간행이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과제가 충실히 밝혀지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청주지역 인물의 문집목록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청주 지역 인물의 문집을 조사하였다.³⁾

II. 문집 간행 인물의 성격

이 글에서 선별한 청주지역 인물은 1910년 이전 출생 인물 중 조

3) 청주 인물의 문집 有無 여부는 조선시대 청주지역 읍지 및 『충청북도 지역의 문집해제』, (임동철 외, 영동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2016)를 참조하여 검토하였다.

선시대 청주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인물을 1차 대상으로 하였다.⁴⁾ 또한 청주에서 출생하지는 않았으나 일정기간을 청주에서 거주하면서 강학활동 등 청주지역에 영향을 미친 인물을 2차로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73명의 인물을 선별하여 본 논문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선별한 문집 저자 73명과 청주와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표1> 문집저자와 청주와의 관련성(생년 순)

연번	문집명	저자명	생년	청주와의 관련성
1	淸隱實記	李乾孫	1416	1455년 단종 폐위소식 듣고 청주 椒井里로 낙향, 高巖里 거주하다 졸
2	訥齋遺稿	朴增榮	1464	청주 강의 木果洞(현 오송읍 연제리) 밀양박씨

4) 조선시대 청주지역은 현재 청주시 상당구의 증양동·성안동·탑동·대성동·영운동·금천동·용담동·명암동·산성동·용암동, 청주시 흥덕구의 운천동·신봉동·북대동·가경동·봉명동·송정동·강서동, 청주시 청원구의 우암동·내덕동·울량동·사천동·오근장동, 청주시 서원구의 사직동·사창동·모충동·수곡동·산남동·분평동·성화동·개신동·죽림동, 청주시 강내면 전체, 청주시 남이면 전체, 청주시 남일면 전체, 청주시 낭성면 전체, 청주시 내수읍 전체, 청주시 미원면 전체, 청주시 오송읍 전체, 청주시 옥산면 전체, 청주시 가덕면 일부인 금거리·내암리·병암리·상야리·한계리, 청주시 북이면 일부인 광암리·금대리·금암리·내둔리·내추리·대길리·대울리·부연리·서당리·석화리·선암리·송정리·신기리·신대리·영하리·장재리·초중리·토성리·현암리·호명리·화상리, 청주시 오창읍 일부인 화산리·유리·일신리·모정리·학소리·원리·복현리·양지리·장대리·창리·주성리·송대리·도암리·괴정리·가곡리·석우리·상평리·기암리·탑리·농소리·신평리·중신리·각리·양청리·구룡리·성산리·후기리·용두리·화산리·가좌리·두릉리·성재리·백현리, 괴산군 청천면 일부인 강평리·거봉리·고성리·귀만리·금평리·대전리·대치리·덕평리·도원리·무릉리·부성리·사기막리·사담리·삼락리·상신리·선평리·송면리·신월리·여사왕리·운교리·월문리·이평리·지경리·지촌리·청천리·평단리·화양리·후영리·후평리, 충남 천안시 수신면·병천면 일부인 송정리, 세종시 부강면 일부인 산수리·행산리, 세종시 소정면 일부인 소정리·운당리, 대전시 동구 일부인 내탑동·사성동·신촌동·오동·주촌동·추동이다.

				입향조
3	江叟遺稿	朴 薰	1484	기묘사화로 유배 후 1533년 고향 청주 강의 목과동에 은거
4	松齋集	韓 忠	1486	청주 鶴谷里 출생, 청주 栗村 거주
5	圭菴集	宋麟壽	1499	청주 馬巖(현 남일면 화당리) 거주
6	慕溪集	趙 綱	1527	청주 花山·蓮亭里 우거
7	花遷堂集	朴春茂	1544	청주 山東 花川 거주
8	靜觀齋集	申 渚	1544	청주 낭성 墨井里 출신으로 1563년 모친상을 당하여 목정리에서 시묘살이
9	拙齋集	申 湜	1551	청주 낭성 墨井里 출신
10	西溪集	李得胤	1553	청주 북이 석화리 출생, 1592년 옥화동에 동서재, 1598년 수락동에 완역재, 1609년 옥화동에 춘풍헌·추월헌을 지어 놓고 문인들을 강학
11	禾谷集	鄭賜湖	1553	청주 미원 禾谷 거주(현 미원면 화창리)
12	霞隱集	申 涌	1560	청주 낭성 墨井里 출신
13	蹈舞集	李英吉	1563	청주 오근 출생, 가곡리 거주
14	漢西集	李光胤	1564	이득윤 동생, 청주 오근 출생
15	竹窓集	姜 籀	1566	청주 외가 출생, 청주 오창 양청리 우거
16	碧梧遺稿	李時發	1569	청주 後穎里 거주(현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17	泰宇集	柳 活	1576	청주 옥산 沙汀里 퇴거
18	雷峰集	池德海	1583	청주 南面 末里洞 출생·성장, 청주 우거
19	遯軒集	李弘有	1588	청주 수락동 출생, 옥화동에서 부친 이득윤과 거주
20	德谷遺稿	朴廷龍	1599	청주 강의 木果洞 德谷 거주
21	琴巖文集	吳 燾	1602	청주 낭성 갈산 출생, 부친상을 당해 청주 낭성으로 와서 삼년상 치름
22	主一齋集	尹承任	1603	청주 미원 芳村 거주
23	晚洲遺集	洪錫箕	1606	청주 판교리(현 미원면 수산리) 출신, 1627년 판교에 後雲亭 짓고 은거
24	芷潭集	申得洪	1608	청주 낭성 墨井里 출생
25	小山集	李萬憲	1622	청주 수락동 출생, 수락동·석화리 거주
26	休巖遺稿	朴世美	1631	청주 강의 목과동 德谷 출생
27	韓溪遺稿	李秀彦	1636	청주 墨坊 출신, 1675-1680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 목방으로 돌아와 강학, 1695-1697 목방리에 농계정사 짓고 강학
28	龍崖集	申應泰	1643	청주 낭성 문박리 출신
29	竹軒集	申必淸	1647	청주 낭성 墨井里 출생
30	晚隱遺稿	洪胄華	1660	청주 판교리 출신

48 역사와 담론 제79집

31	忍齋集	申 灝	1662	청주 낭성 목정리 출생
32	癡堂遺稿	延最績	1663	청주 九龍山 밑 배터 華淸里 출생(현 모충동 인근)
33	巽齋集	朴致和	1680	청주 목과동 출생
34	雪嶽遺稿	池光翰	1695	청주 臥松里 출생
35	栢峯集	李弘濟	1722	청주 오창 기암리 출생, 1784년 오창으로 돌아와 거주하다 졸
36	漢源遺稿	盧 兢	1737	청주 남일 가산리 입향조
37	鶴沙集	申顯祿	1752	청주 낭성 墨井里 출생
38	耕山集	吳翼煥	1754	청주 낭성 葛山里 거주
39	疵菴集	李審度	1762	청주 미워 雙耳里 출생
40	仙谷遺稿	朴建中	1766	젊어서부터 청주 선유동 거주
41	四愚齋集	申允模	1784	청주 낭성 墨井里 출생, 말년에 목정리 雙鶴山에 기거
42	耐軒遺稿	宋志洙	1793	청주 馬巖(현 남일면 화당리) 출생
43	菊庵遺稿	申冕求	1795	청주 낭성 墨井里 출신
44	澹人集	申佐模	1799	청주 가덕 청룡리 출신
45	芝圃遺稿	申光煥	1826	청주 낭성 문박리 출생, 성장
46	小近齋集	朴翼東	1827	청주에서 강학
47	悔齋遺稿	蔡相學	1837	청주 오근장 內谷 출생
48	晦堂遺稿	申冕休	1845	청주 낭성 墨井里 출생
49	石軒譚麇	申昇求	1850	청주 가덕 靑龍里 출생
50	蕙田集	羅獻容	1851	청주 飛鴻里 출생. 말년 청주 낙향
51	晚軒遺稿	申相烈	1852	청주 司諫里 출생
52	勇菴遺稿	金思禹	1857	청주 오창 主城里 인곡 출생
53	惺菴集	朴胄淳	1858	청주 불일 飛鴻里 강학
54	小心齋遺稿	黃鍾復	1858	청주 오근장 거주
55	滄菴集	朴魯重	1863	청주 福臺里 獨山 출생
56	苟堂文集	申秉休	1863	청주 낭성 官井里 출생. 墨井里 우거
57	澗松遺稿	尹榮教	1863	청주 낭성 관정리 출생
58	春溪集	宋毅燮	1865	청주 강내 출생
59	素堂集	金濟煥	1867	청주 낭성 梨木里 陽村 출생
60	蘇眉遺稿	申轍雨	1868	청주 낭성 출생
61	石齋集	鄭斗鉉	1869	청주 옥산 덕촌리 출생
62	定堂集	金成煥	1875	청주 낭성 梨木里 陽村 출생
63	楠溪遺稿	申昌模	1876	청주 낭성 造谷 출생
64	東谷遺稿	尹在赫	1888	청주 가덕 수곡리 출생, 수곡리에서 강학
65	竹澗集	申天錫	1889	청주 낭성 文博里 출생

66	松隱詩集	羅相岳	1893	청주 출생, 거주
67	退雲集	申學錫	1894	청주 낭성 文博里 출신
68	誠堂文集	曹斗煥	1895	청주 琅城 武城里 등지 강학
69	湖雲逸稿	朴鍾述	1898	청주 복일 출생
70	友石稿	申海澈	1900	청주 흥덕구 서촌동 출생
71	誠堂集	朴象圭	1903	청주 복대리 출신
72	隱菴集	朴允燮	1904	청주 南二 石室里 출생(현 남이면 석실리)
73	錦史文集	盧章愚	1906	청주 남일 신송리 출생

이 표를 통하여 보면 청주지역 출신 인물 중 1910년 이전 출생한 조선시대 인물로 문집이 간행된 경우는 청주 椒井里에 입향하여 거주했던 李乾孫(1416~1458)의 『淸隱實記』부터 한말 한학자로 청주 남일 신송리 출신인 盧章愚(1906~1992)의 『錦史文集』까지 73건이 있다.

1. 출생연도별

<표2> 출생연도별 저자수

출생연도	저자수(%)	출생연도	저자수(%)
15세기	5명(6.8%)	18세기	10명(13.6%)
16세기	15명(20.5%)	19세기 이후	29명(39.7%)
17세기	14명(19.1%)	합계	73명

1) 15세기 출생 인물

문집을 간행한 15세기 출생 인물로는 李乾孫(1416~1458, 『淸隱實記』), 朴增榮(1464~1493, 『訥齋遺稿』), 朴薰(1484~1540, 『江叟遺稿』), 韓忠(1486~1521, 『松齋集』), 宋麟壽(1499~1547, 『圭菴集』) 등 5인으로, 전체 청주 인물 중 6.8%를 차지한다. 이들 중 이견손은 단종의 폐위 소식을 듣고 청주 초정리로 입향하여 은거한 인물이고

박증영은 청주 강의 목과동 밀양박씨 입향조이고, 그 아들 박훈은 己卯土禍(1519) 후 고향인 목과동에 은거하였으며, 송인수의 경우 乙巳土禍(1545) 때 파직되어 청주 남일 화당리에 은거했던 인물이다. 즉 15세기 출생 문집간행 인물 5인 중 4인이 이거사족으로, 청주지역에서는 土姓보다는 移居士族들을 중심으로 문집이 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2) 16세기 출생 인물

<표3> 청주출신 문집간행 인물 중 16세기 출생인물(15명)

문집명	저자(생몰년)	문집명	저자(생몰년)	문집명	저자(생몰년)
慕溪集	趙 綱(1527~1599)	西溪集	李得胤(1553~1630)	碧梧遺稿	李時發(1569~1626)
花遷堂集	朴春茂(1544~1611)	霞隱集	申 涌(1560~1631)	泰宇集	柳 活(1576~1641)
靜觀齋集	申 渚(1544~1588)	蹈舞集	李英吉(1563~1638)	雷峰集	池德海(1583~1641)
拙齋集	申 湜(1551~1623)	瀼西集	李光胤(1564~1637)	遜軒集	李弘有(1588~1671)
禾谷集	鄭賜湖(1553~1616)	竹窓遺稿	姜 籀(1567~1650)	德谷遺稿	朴廷龍(1599~1673)

문집을 간행한 청주 인물 중 16세기 출생인물은 15명으로 20.5%이다. 19세기를 제외하고는 16세기 인물이 가장 많은 수의 문집을 남겼다. 그리고 이들 중 다수는 李得胤(1553~1630)⁵⁾이라는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 이득윤은 1592년 옥화동에 東西齋, 1598년 수락동에 玩易齋, 1609년에 옥화동에 春風堂·秋月軒을 지어 놓고 수 백명에 이르는 문인들을 강학하였다. 특히 이득윤과 교류했던 조강·정사호와 이득윤의 제자 이덕수·홍석기는 이득윤과 같은 琅城八賢⁶⁾의 한

5) 이득윤은 서경덕의 제자로 화담학파인 서기와 박지화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또 이득윤은 김장생이나 정구 등 동·서인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학문적 교류를 하는 등 절충적이고 개방적인 학풍을 보였다. 또한 『주역』 연구에 매진하여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었다.

사람으로 1세대 청주사림의 핵심인물이 된다. 또 다른 제자인 변시망·나만기·지덕해·오행민 등도 청주사림의 주요 인물로 성장한다. 즉 이득윤의 강화활동은 많은 청주의 사람을 배출해 내는데 역할을 했다.⁷⁾

이러한 점은 16세기 출생인물의 문집 간행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즉 이득윤 본인이 문집을 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득윤과 교류했던 조강·정사호, 이득윤의 동생 이광윤, 아들 이홍유, 이득윤의 문인 이시발·신용·지덕해, 신용의 형제인 신저·신식 등 이득윤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16세기 출생 인물 10명이 문집을 남기고 있다.

3) 17세기 출생 인물

<표4> 청주출신 문집간행 인물 중 17세기 출생인물(14명)

문집명	저자(생몰년)	문집명	저자(생몰년)	문집명	저자(생몰년)
琴巖文集	吳 燾(1602~1675)	休巖遺稿	朴世美(1631~1676)	晚隱遺稿	洪冑華(1660~1718)
主一齋集	尹承任(1603~1688)	龔溪遺稿	李秀彦(1636~1697)	忍齋集	申 灝(1662~1729)
晚洲遺集	洪錫箕(1606~1680)	龍崖集	申應泰(1643~1728)	癡堂遺稿	延最績(1663~1693)
芷潭集	申得洪(1608~1653)	竹軒集	申必淸(1647~1710)	巽齋集	朴致和(1680~1676)
小山集	李萬憲(1622~ ?)	雪巖遺稿	池光翰(1659~1756)		

문집을 간행한 73명의 청주 인물 중 17세기 출생인물은 모두 14

- 6) 이른바 조선시대 청주지역의 대표적 사족으로 언급되어 온 琅城八賢으로 朴薰(1484~1540), 韓忠(1486~1521), 宋麟壽(1499~1547), 趙綱(1527~1599), 鄭賜湖(1553~1616), 李得胤(1553~1630), 李德洙(1577~1645), 洪錫箕(1606~1680)가 있다. 그런데 이 8인 중 5인이 이득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이들 중 이덕수를 제외한 7인이 문집을 남기고 있다.
- 7) 고수연, 「16-17세기 이잠·이득윤 부자의 강화활동과 문인의 동향」, 『역사와 담론』 73, 2015, 233쪽 참조.

명으로 19.1%이다. 17세기 후반 청주지역은 서인-노론계 宗匠인 尤庵 宋時烈(1607~1689)이 학문적·정치적 활동을 전개했던 지역으로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 인근에 華陽書院(1695년 건립)과 萬東廟(1704년 건립)가 건립되어 노론의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한 지역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송시열에 의한 노론 세력 확대에 반대하는 청주지역 남인-소론계 사족과 노론이 鄉戰을 일으킨 지역이기도 하다.⁸⁾

문집을 간행한 인물도 이러한 17세기 당시 청주지역의 모습과 연관이 있다. 즉 문집을 간행한 고령신씨 3명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남인계 사족이었고, 밀양박씨 2명은 과격한 노론계 사족이었다.

우선 고령신씨인 申得洪은 退溪學派로 南人인 申涌의 아들이었다. 申必淸도 신용의 증손이고, 신필청의 사위는 남인계 실학자 星湖 李瀾이었다. 申灝은 강계부사로 있을 당시 퇴계학파에게 큰 영향을 준 晦齋 李彦迪의 사당을 증건하였다. 즉 문집이 있고, 17세기에 출생한 청주의 고령신씨들은 남인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 문집이 있는 밀양박씨 朴世美는 박정용의 아들로 효우와 학문이 뛰어나 송시열이 “江叟後一人”이라 칭찬하였다. 朴致和는 노론 4대신이 王弟 延祜君을 왕세제로 책봉하여,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게 되었을 때 사헌부장령으로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상소하였으며, 또 신임사화가 일어나 노론이 실각하자 유배된 인물이다.

8) 송시열은 1656년 신항서원에 이이·이색을 추향한 이후 1665년 신항서원 위치조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청주지역에 서인계 당파세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론계의 주도권 장악에 대한 반발로 1675년 청주지역 노론계 인물인 池若海의 신항서원 儒籍 삭제사건이 일어났다. 또 1679년에는 청주의 경주이씨 李寅賓이 송시열이 李有瀆의 역모사건 배후와 관련되었다며 송시열의 처벌을 청하기도 하였다. (고수연, 『1728년 무신란과 청주지역 사족 동향』,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36~137쪽 참조)

즉 밀양박씨인 박세미는 서인-노론계 학맥을 가지고 있으며, 노론의 종장 송시열과 교유한 인물이었다. 박치화 역시 강경한 노론계열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17세기 출생인물로 문집을 남긴 인물들은 노론이나 남인 같은 분명한 당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4) 18세기 출생 인물

<표5> 청주출신 문집간행 인물 중 18세기 출생인물(10명)

문집명	저자(생몰년)	문집명	저자(생몰년)	문집명	저자(생몰년)
栢峯集	李弘濟(1722~1784)	疵菴集	李審度(1762~1808)	菊庵遺稿	申冕求(1795~1832)
漢源遺稿	盧 兢(1737~1790)	仙谷遺稿	朴建中(1766~1841)	澹人集	申佐模(1799~1877)
鶴沙集	申顯祿(1752~1828)	四愚齋集	申允模(1784~1853)		
耕山集	吳翼煥(1754~1797)	耐軒遺稿	宋志洙(1793~1862)		

문집을 간행한 73명의 청주 인물 중 18세기 출생인물은 10명으로 13.6%이다. 1728년 청주지역에서는 영조대 戊申亂이 일어나 청주 지역 남인과 소론계 사족이 반란군에 가담하였고, 노론계 가문이 의병활동을 하는 등 노론대 남인·소론 사족의 대립은 절정으로 치닫는다. 이 시기 문집을 남긴 인물은 16, 17세기보다 양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17세기와 마찬가지로 노론과 남인으로 분명한 당색을 보인 인물들이 문집을 간행한다. 즉 남인인 고령신씨 신현록·신윤모 부자와 신좌모·신승구 부자, 노론계 인물인 이심도·박건중·송지수가 문집을 남기고 있다.

5) 19세기 이후 출생 인물

<표6> 청주출신 문집간행 인물 중 19세기 이후 출생인물(29명)

문집명	저자(생몰년)	문집명	저자(생몰년)	문집명	저자(생몰년)
小近齋集	朴翼東(1827~1895)	滄菴集	朴魯重(1863~1945)	竹澗集	申天錫(1889~1971)
芝圃遺稿	申光煥(1826~1909)	苟堂文集	申秉休(1863~1931)	松隱松峰詩集	羅相岳(1893~1979)
悔齋遺稿	蔡相學(1837~1926)	澗松遺稿	尹榮教(1863~1945)	退雲集	申學錫(1894~1939)
晦堂遺稿	申冕休(1845~1933)	春溪集	宋毅燮(1865~1944)	誠堂文集	曹斗煥(1895~1952)
石軒譚嘖	申昇求(1850~1932)	素堂集	金濟煥(1867~1916)	湖雲逸稿	朴鍾述(1898~1970)
蕙田集	羅獻容(1851~1925)	蘇眉遺稿	申轍雨(1868~1948)	友石稿	申海澈(1900~1941)
晚軒遺稿	申相烈(1852~1911)	石齋集	鄭斗鉉(1869~1940)	誠堂集	朴象圭(1903~1962)
勇菴遺稿	金思禹(1857~1907)	定堂集	金成煥(1875~1957)	隱菴集	朴允燮(1904~1907)
惺菴集	朴胄淳(1858~1929)	楠溪遺稿	申昌模(1876~1955)	錦史文集	盧章愚(1906~1992)
小心齋遺稿	黃鍾復(1858~1935)	東谷遺稿	尹在赫(1888~1966)		

문집을 간행한 73명의 청주 인물 중 1800년~1910년 사이 출생한 인물은 2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39.7%이다. 그 중 老論-洛論系の 계보를 잇는 艮齋 田愚(1841~1922)와 교류를 했거나 그 문인의 문집이 많이 간행된 것이 특징이다.

당시 전우에게 수학한 청주 출신의 문인으로 문집을 남긴 사람은 金思禹·黃鍾復·朴魯重·宋毅燮·鄭斗鉉·曹斗煥 등 6명에 이른다.⁹⁾ 이들은 ‘自靖論’의 길을 택한 스승 전우의 영향 때문에 한말 의병전쟁에서 큰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¹⁰⁾ 문집을 남겼다. 문집 안에는 그들과 전우와의 관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황중복과 송의섭은 전우가 진천 渴灘里 이씨 문중에 와서 잠시 강학했을 때 찾아가서 사제의 의를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박노중은 1920년에 아들 朴象圭를 데리고 繼華島로 가서 전우를 스승으로 모

9) 朴魯重, 『滄菴集』 권3 서 「師友同門」, 권7 부록 「先考滄菴處士府君家狀」.

10) 성대경, 「보수유생의 ‘자정론’과 외세대응양식-간재 전우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5, 1990.

했다. 이후 올린 몇 편의 글도 문집에 있다. 조두환은 성년이 되어 전우의 문인이 되었다.

이외에도 19세기 청주지역에는 韓元震-金福漢-朴靑淳-金濟煥-金成煥-申天錫-申海澈로 이어지는 老論-湖論系 학맥도 있었다.¹¹⁾ 이들 중 박주순·김제환·김성환·신천석·신해철이 문집을 남겼다.

즉 1800년~1910년 사이 출생한 인물은 29명의 문집 중 노론 낙론계 간재학과 6명과, 노론 호론계 5명이 문집을 남긴 것이다.

이상으로 문집을 간행한 저자를 출생연도별로 나누어 그 양상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첫째, 15세기 출생인물 5명이 문집을 남기고 있는데, 이중 4명이 이거사족으로 청주지역에서는 토성보다는 이거사족들을 중심으로 문집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16세기에 출생한 인물 15명이 문집을 남겼다. 19세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문집을 남긴 시기로, 이득윤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셋째, 17세기 문집을 남긴 인물은 모두 14명으로 노론이나 남인으로 당색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었다. 넷째, 1728년 영조대 戊申亂으로 조선 시대 역사에서 청주가 주목되었던 18세기의 인물 중 문집을 간행한 경우는 모두 9명으로 역시 노론과 남인들이 문집을 간행하고 있었다. 다섯째, 문집을 남긴 73명 중 19세기 이후 출생인물이 2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이들은 노론-호론계와 노론-낙론계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성씨별

청주 출신으로 문집을 남기고 있는 73명의 인물을 성씨별로 분류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11) 이석린, 「창암 박노중의 생애와 학맥」, 『중원문화논총』 8, 충북대중원문화연구소, 2004.

<표7> 청주인물 성씨별 문집간행 현황(73건)

성씨	간행 수량								
高靈申氏	15	金海金氏	2	全義李氏	2	礪山宋氏	1	河東鄭氏	1
順天朴氏	6	交河盧氏	2	韓山李氏	2	平山申氏	1	昌寧寧氏	1
慶州李氏	5	安定羅氏	2	忠州池氏	2	谷山延氏	1	漢陽趙氏	1
密陽朴氏	5	尙州朴氏	2	南陽洪氏	2	興陽柳氏	1	淸州韓氏	1
攄州申氏	5	恩津宋氏	2	晉州姜氏	1	全州李氏	1	仁川蔡氏	1
坡平尹氏	3	寶性吳氏	2	安東金氏	1	光州鄭氏	1	昌原黃氏	1

청주지역에 세거했던 30개의 성씨가 문집을 남기고 있다. 이 중 고령신씨·순천박씨·경주이씨·밀양박씨·아주신씨 등이 5건 이상 다량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그 성씨들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高靈申氏

<표8> 문집을 간행한 청주지역 고령신씨 인물(15건)

문집	저자	간행년 (초간)	문집	저자	간행년 (초간)
靜觀齋集	申 渚(1544~1588)	1961	菊庵遺稿	申冕求(1795~1832)	미상
拙齋集	申 滉(1551~1623)	1961	澹人集	申佐模(1799~1877)	1916
霞隱集	申 涌(1560~1631)	1961	晦堂遺稿	申冕休(1845~1933)	1960
芷潭集	申得洪(1608~1653)	1923	石軒譚嚙	申昇求(1850~1932)	1993
竹軒集	申必淸(1647~1710)	1972	苟堂文集	申秉休(1863~1931)	1973
忍齋集	申 灝(1662~1729)	1968	蘇眉遺稿	申轍雨(1868~1948)	1962
鶴沙集	申顯祿(1752~1828)	1965	楠溪遺稿	申昌模(1876~1955)	1978
四愚齋集	申允模(1784~1853)	1964			

청주 인물 중 가장 많은 문집을 남긴 성씨는 고령신씨이다. 16세기 인물이 3명, 17세기 인물이 3명, 18세기 인물이 4명, 19세기 인물

이 6명으로 세기별로 문집 간행 인물들이 고르게 분포한다. 다만 고령신씨들의 문집 간행은 미상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20세기에 와서 이루어졌다. 즉 조선시대에는 문집간행을 한 건도 이루어 내지 못했던 것이다.

청주에 거주하는 고령신씨는 靈城君派로 일명 山東申氏로 불리는데, 퇴계학파이자 남인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신씨가 청주에 입향한 것은 申光潤(1468~1554) 때로 가문의 전장이 있던 청주 북이 용계리 모애 마을에 내려와 살다가 후에 낭성 관정리 목정으로 이거하였다. 청주의 고령신씨는 16세기에 이르러 신광윤의 증손인 申渚와 그 동생 申湜과 申涌 대에 와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들 3형제는 각각 『靜觀齋先生集』·『拙齋先生集』·『霞隱先生集』을 남겼는데, 세 문집을 합쳐 1961년 『鵠原雜詠』으로 간행되었다.

신저는 大谷 成運의 문인으로 承議郎을 지냈으며, 청주 鳳溪書院과 雙泉書院에 배향되었다. 신식 역시 성운과 退溪 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했으며, 乙巳土禍(1545)에 연루되어 사사되었다. 청주 쌍천서원과 墨井書院에 제향되었다. 신용도 성운·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이득윤의 문인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여 선무이등공신에 훈록되었다. 형 신식과 마찬가지로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사사되었다. 봉계서원과 목정서원에 배향되었다. 즉 이들 삼형제는 退溪學脈로 2명은 을사사화로 사사된다.

또 신용의 아들 申得洪과 신용의 증손 申必淸도 문집을 남기고 있다. 그 외 申顯祿과 申允模 부자, 신용모의 손자 申冕休도 문집을 남겼으며, 申佐模와 申昇求 부자도 문집을 남기고 있다.

2) 順天朴氏

<표9> 문집을 간행한 청주지역 순천박씨 인물(6건)

문집	저자	간행년 (초간)	문집	저자	간행년 (초간)
花遷堂集	朴春茂(1544~1611)	한말	滄菴集	朴魯重(1863~1945)	1962
小近齋集	朴翼東(1827~1895)	1937	湖雲逸稿	朴鍾述(1898~1970)	2006
惺菴集	朴胄淳(1858~1929)	1952	誠堂集	朴象圭(1903~1962)	1969

순천박씨는 청주의 가문 중 두 번째로 많은 6건의 문집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朴春茂를 제외하고는 모두 19-20세기 인물이며, 간행 역시 박춘무의 『화천당집』만 한말에 간행하였고, 그 외의 인물 문집은 모두 20세기 이후에 간행되었다.

순천박씨가 청주에 입향 한 것은 朴宜倫 때로 청주 外北洞 松谷으로 입향하였다.¹²⁾ 그리고 박의륜의 증손인 박춘무와 朴春蕃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청주성 탈환에 공을 세우면서 순천박씨는 청주지역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다. 박춘무의 아들 朴東命 역시 무신으로 李适의 난과 병자호란에 참여하였다. 박춘번의 현손인 朴敏雄과 朴敏俊은 1728년 영조대 무신란 때 청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들 중 박춘무, 朴翼東(박민웅 5세손)·朴魯重·朴象圭 3대, 그리고 朴胄淳이 문집을 남겼다. 특히 박익동은 田愚와 교류하였고, 아들 박노중은 전우의 제자가 되면서 순천박씨는 노론 낙론계의 학맥을 잇게 되었다. 이것은 박노중이 선대 이래 서인-노론 가문의 가학적 전통을 잇고, 노론-낙론을 계승한 청주의 학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박노중은 1936년 순천박씨 족보와 부친 박익동의 문집 『소근재집』을 발간하였고, 1943년에는 박민웅의 『湖西散人實

12) 『순천박씨하북대파세보』 上.

紀』를 발간하는 등 가문의 현양 사업에 적극적이었다.¹³⁾ 박주순 역시 학문과 교육활동을 통해 청주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3) 密陽朴氏

<표10> 문집을 간행한 청주지역 밀양박씨 인물(5건)

문집	저자	간행년 (초간)	문집	저자	간행년 (초간)
訥齋遺稿	朴增榮(1464~1493)	1666	休巖遺稿	朴世美(1631~1676)	1980
江叟遺稿	朴 薰(1484~1540)	1666	巽齋集	朴致和(1680~1676)	1875
德谷遺稿	朴廷龍(1599~1673)	1980			

밀양박씨는 5건의 문집을 남겨 청주 가문 중 세 번째로 많은 문집을 남겼다. 그러나 오히려 고령신씨나 순천박씨 가문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 인물이 문집을 남기고 있으며, 간행시기 역시 빠르다. 밀양박씨의 경우 15세기 인물이 2명, 16세기 인물이 1명, 17세기 인물 2명이 문집을 남겼다. 朴增榮·朴薰 父子, 박훈 현손 朴廷龍·朴世美 부자, 그리고 朴致和가 그들이다.

밀양박씨 청주 입향조는 박증영은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청주 菊溪書院에 제향되었다. 박훈은 박증영의 아들로 모친은 청주 木果洞(현 오송읍 연제리)에 세거하던 竹山朴氏 朴英達의 딸이다. 동부승지를 지냈으나 기묘사화 때 趙光祖·金淨 등과 함께 화를 입어 星州에 유배되었다. 1533년 유배에서 풀려나 목과동으로 돌아와 은거하였다. 청주의 莘巷書院에 제향되었다.

박증영과 박훈의 문집은 후손 박정용 등이 수집하여, 宋時烈的 序文을 붙인 후 합철하여 1666년(현종 7)에 간행하였다. 박훈의 현

13) 朴魯重, 『滄菴集』, 연보.

손인 박정용도 『德谷遺稿』를 남기고 있다. 박정용의 아들 박세미도 『休巖遺稿』를 남겼다. 박세미는 효행과 학문이 뛰어나 송시열이 극찬하였다. 박정용과 박세미의 유고는 모두 박세미 손자 朴致煥이 수습하여, 9세손 朴性仲이 1980년에 간행하였다. 박치화 역시 박훈의 후손으로 『巽齋集』을 남겼다. 박치화는 延祜君(영조)을 왕세제로 책봉할 때 사헌부장령으로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상소했으며, 신임사화로 노론이 실각하자 유배되었다. 박치화의 유고는 1975년에 후손 朴性洙가 편집·간행하였다. 즉 문집을 남긴 5명 중 박정용·박세미 부자와 박치화 등은 노론으로 활약하였다.

4) 鵝洲申氏

<표11> 문집을 간행한 청주지역 아주신씨 인물(5건)

문집명	저자	간행년 (초간)	문집명	저자	간행년 (초간)
龍崖集	申應泰(1643~1728)	1968	竹澗集	申天錫(1889~1971)	1974
芝圃遺稿	申光煥(1826~1909)	미상	退雲集	申學錫(1894~1939)	1951
晚軒遺稿	申相烈(1852~1911)	1982			

아주신씨 역시 5건의 문집을 남기고 있다. 청주의 아주신씨는 남성 문락리에 申幹(?~1539)이 입향하면서 세거가 시작되었다. 이후 신간의 5대손 申應泰는 송시열의 문인으로 1689년 己巳換局 때 송시열이 사사되자 이에 항변하는 상소문을 쓰는 등, 스승의 伸冤을 위하여 힘썼다. 신응태의 문집 『龍崖集』은 9세손 申泰鮮이 편찬하여 1968년에 간행하였다. 문집 안의 시에는 「華陽洞謁尤庵先生」·「憶華陽舊遊有感」·「華陽舊宅謁尤庵老先生畫像」 등 화양동과 관련하여 쓴 작품들이 많다.

신응태 6세손 申光煥도 『芝圃遺稿』를 남기고 있다. 문집에 수록된 「華陽洞謁尤庵先生影頌」 역시 화양동에 가서 송시열의 영정을 배알하고 지은 작품이다.

신광환의 손자인 申學錫은 朴胄淳과 金濟煥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김제환·申榮泰·李鍾萬·卞榮仁 등과 항일운동을 했다. 저자의 문집은 장자 申泰秀 등이 수습하여 1951년에 『退雲集』을 편찬하였다. 권2에는 스승 김제환과 주고받은 서가 실려 있다.

신학석의 사촌인 申天錫도 문집 『竹澗集』을 남겼다. 신천석 역시 김제환의 문하에 나아가 학업을 닦았고, 김제환이 순국하자 박주순의 문하가 되었다. 광복이 되자 김제환의 『素堂集』의 간행에 앞장섰다. 저자의 아들 申泰赫이 1974년에 『죽간집』을 간행하였다. 『죽간집』의 「祭素堂先生文」에서는 스승 김제환의 학문과 절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즉 아주신씨는 노론계 가문으로 특히 신학석·신천석은 남당 한원진·김제환·박주순을 잇는 청주지역 노론·호론계의 가문으로 5건의 문집을 남겼다.

5) 慶州李氏

<표12> 문집을 간행한 청주지역 경주이씨 인물(5건)

문집명	저자	간행년 (초간)	문집명	저자	간행년 (초간)
西溪集	李得胤(1553~1630)	1833	遯軒集	李弘有(1588~1671)	1890
瀼西集	李光胤(1564~1637)	1752 이후 영조대	小山集	李萬憲(1622~ ?)	1922
碧梧遺稿	李時發(1569~1626)	미상			

다음은 경주이씨가 5건의 문집을 남기고 있다. 인물은 16세기 인물 대부분이나 문집의 간행은 18세기 후반 이후에 이루어졌다.

경주이씨 익재공파의 청주 입향조는 李公麟으로 1504년 甲子士禍 때 유배된 후 中宗反正으로 풀려나서 妻鄉인 청주 수락동(현 청주 미원 가양리)에 입향하였다. 이공린은 여덟 아들을 두었는데, 막내아들인 李鯤이 바로 부친이 있는 청주 수락동에 정착하였다. 청주에 정착한 이공의 아들 李潛은 청주 石花里(현 청주 북이 석화리)에 머물면서 학문 연구와 강학에 전념한다. 이잠의 아들 李得胤 역시 부친과 마찬가지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석화리·수락동·옥화동(현, 청주 미원 옥화리) 등 거처를 옮겨가며 활발하게 학문탐구와 강학활동을 전개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계 이득윤은 청주지역 경주이씨의 중심 인물이자 낭성팔현 중 한 명이고, 역시 낭성팔현인 조강과 정사호와 교유한다. 그리고 역시 낭성팔현인 이덕수와 홍석기는 이득윤의 수제자이다. 청주에 입향한 경주이씨 가문 자제들 역시 家學으로 이잠과 이득윤에게 배우게 된다. 그 외에 족손 李時發도 이득윤에게 와서 배운다. 이시발은 임진왜란·이몽학의 난·이괄의 난 때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홍유와 이만현은 특별한 정치적 행적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홍유의 경우 1648년 청주지역 사림들이 천거하여 都訓長이 되었다. 또 그 아들 이만현 역시 山長으로 추대되었다.

이처럼 청주 경주이씨 익재공파의 인물은 이득윤을 중심으로 혈연과 강학으로 연계되어 있었으며, 그 중 5인의 문집이 남아 전한다. 즉 이득윤의 동생이 이광윤, 이득윤의 아들 이홍유, 손자 이만현, 족손이자 제자인 이시발이 문집을 남겼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청주에서 살다간 혈연지간이자, 사제지간이었다.

이상 문집 저자를 성씨별로 나누어 그 성격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청주지역에 세거했던 30개 성씨가 문집을 남겼는데, 이 중 고

령신씨·순천박씨·경주이씨·밀양박씨·아주신씨 등이 다량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고령신씨 15명이 문집을 남겨 가장 많이 남긴 성씨가 되었다. 고령신씨들은 16세기 인물이 3명, 17세기 인물이 3명, 18세기 인물이 4명, 19세기 인물이 5명으로 세기별로 문집 간행 인물들이 고르게 분포한다. 다만 고령신씨들의 문집의 간행은 15건 모두 해당 인물이 죽은 직후가 아닌 20세기에 와서 이루어졌다. 즉 조선시대에는 문집을 간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들은 퇴계학파이자 남인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가 순천박씨로 청주의 성씨 중 두 번째로 많은 6건의 문집을 남기고 있다. 순천박씨는 서인 노론 가문의 가학적 전통을 잇고, 노론-낙론계를 계승한 인물들이 문집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박춘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19-20세기 인물이며, 간행 역시 박춘무의 『화천당집』만 한말에 간행하였고, 그 외의 인물 문집은 모두 20세기 이후에 간행되었다.

다음으로 밀양박씨가 5건의 문집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고령신씨나 순천박씨 가문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인물이 문집을 남기고 있다. 밀양박씨의 경우 15세기 2명, 16세기 1명, 17세기 2명의 인물이 문집을 남기고 있다. 이 중 박정용·박세미 부자와 박치화 등은 노론으로 활약하였다.

아주신씨 역시 5건의 문집을 남기고 있다. 아주신씨는 노론계 가문으로 문집을 남긴 신학석·신천석은 한원진·김제환·박주순을 잇는 청주지역 노론-호론계의 인물이었다.

경주이씨도 5건의 문집을 남기고 있다. 이들은 이득윤과 이득운의 동생이 이광윤, 이득윤의 아들 이홍유, 손자 이만현, 족손이자 제자인 이시발이 문집을 남겼다. 이들은 모두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청주에서 살다간 이득윤을 중심으로 한 혈연지간이자, 사제지간

이었다.

다량의 문집이 간행된 청주지역 가문 중 순천박씨·밀양박씨·아주
신씨는 노론적 성향을, 고령신씨는 남인적 성향을, 경주이씨는 뚜렷
한 당색을 보이고 있지 않다.

Ⅲ. 문집간행 양상

조선시대 청주지역 인물의 73건의 문집을 간행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3> 간행시기별 문집 현황

간행시기	문집수	문집명(저자, 간행년)
17세기	3	竹窓遺稿(姜籀, 1654) 訥齋遺稿(朴增榮, 1666) 江叟遺稿(朴薰, 1666)
18세기	4	雪嶽遺稿(池光翰, 1757) 晚洲遺集(洪錫箕, 1793) 耕山集(吳翼煥, 1797) 瀼西集(李光胤, 18세기 추정)
19세기	10	晚隱遺稿(洪胄華, 1802) 龔溪遺稿(李秀彦, 1806이후) 西溪集(李得胤, 1833) 琴巖文集(吳燾, 1853) 癡堂遺稿(延最績, 1871) 雷峰集(池德海, 1875) 松齋集(韓忠, 1889) 遜軒集(李弘有, 1890) 禾谷集(鄭賜湖, 1899) 花遷堂集(朴春茂, 한말)
일제강점기	10	慕溪集(趙綱, 1904) 圭菴集(宋麟壽, 1907) 澹人集(申佐模, 1916) 小山集(李萬憲, 1922) 芷潭集(申得洪, 1923) 悔齋遺稿(蔡相學, 1933) 耐軒遺稿(宋志洙, 1935) 蕙田集(羅獻容, 1937) 小近齋集(朴翼東, 1937) 栢峯集(李弘濟, 1941)
1945년 이후	42	素堂集(金濟煥, 1950) 退雲集(中學錫, 1951) 惺菴集(朴胄淳, 1952) 晦堂遺稿(申晁休, 1960) 靜觀齋集(申渚, 1961) 拙齋集(申湜, 1961) 霞隱集(申涌, 1961) 滄菴集(朴魯重, 1962) 蘇眉遺稿(申轍雨, 1962) 石齋集(鄭斗鉉, 1962) 四愚齋集(申允模, 1964) 鶴沙集(申顯祿, 1965) 忍齋集(申擧, 1968) 龍崖集(申應泰, 1968) 春溪集(宋毅燮, 1969) 誠堂集(朴象圭, 1969) 仙谷遺

		稿(朴建中, 1971) 竹軒集(申必淸, 1972) 苟堂文集(申秉休, 1973) 淸隱實記(李乾孫, 1974) 定堂集(金成煥, 1974) 竹澗集(申天錫, 1974) 巽齋集(朴致和, 1975) 漢源遺稿(盧兢, 1976) 楠溪遺稿(申昌模, 1978) 德谷遺稿(朴廷龍, 1980) 休巖遺稿(朴世美, 1980) 小心齋遺稿(黃鍾復, 1981) 晚軒遺稿(申相烈, 1982) 東谷遺稿(尹在赫, 1983) 澗松遺稿(尹榮教, 1983) 勇菴遺稿(金思禹, 1984) 隱菴集(朴允燮, 1984) 蹈舞集(李英吉, 1984) 友石稿(申海澈, 1988) 泰宇集(柳活, 1989) 錦史文集(盧章愚, 1993) 石軒譚嚙(申昇求, 1993) 誠堂文集(曹斗煥, 1995) 疵菴集(李審度, 1995) 松隱松峰詩集(羅相岳, 2002) 湖雲逸稿(朴鍾述, 2006)
간행년 미상	4	主一齋集(尹承任, 무진년) 碧梧遺稿(李時發) 芝圃遺稿(申光煥) 菊庵遺稿(申昇求)

1. 17세기

청주 인물의 문집 중 간행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17세기로 3건의 문집이 간행되어 4.1%를 차지한다. 조선시대 청주 인물로 가장 먼저 문집을 간행한 것은 **淸州姜氏 姜籀(1566~1650)**의 『竹窓遺稿』이다. 강주의 문집은 사후에 아들 강백년이 호서관찰사로 있으면서 편찬하여 2권 1책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강주의 모친은 청주 오창에 거주하던 감역 **吳夢龍**의 딸 **寶城吳氏**이다. 강주는 청주 오창 보성오씨 외가에서 성장하였고, 오창 양청리 무령봉 밑에 집과 농장을 후원받기도 하였다. 『죽창유고』에 실린 시 가운데 「初發吳中」·「楊花」·「吳中偶吟」·「壽正字兒」·「卽事」·「秋夜」·「客中偶吟」·「思歸」·「題雪簑南公夢鳥亭」등 오창 외가와 관련된 시가 다수 실려 있다.

진주강씨 외 17세기에 간행된 두 문집은 밀양박씨의 문집이다. 『訥齋遺稿』는 **朴增榮(1464~1493)**의 문집으로, 2권 2책의 목판본이다. 이 책은 아들 **朴薰(1484~1540)**의 문집인 『江叟遺稿』와 합철되

어 있다. 합철 된 『눌재강수유고』는 박훈의 현손 朴廷龍 등이 수집하여, 현손 박이룡 등이 1666년에 청주 옥산 恭孝祠에서 간행하였다. 1666년 간행된 『눌재강수유고』를 간행하기 위하여 새긴 판목은 현재까지 남아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 청주지역의 진주강씨와 밀양박씨 집안은 17세기에 청주에서 가장 이른 시기 문집 간행할 정도로 당대에는 가문의 학문적·사회적·경제적 위상이 컸으며, 편찬과 간행의 주체는 저자의 아들이나 후손이었다.

2. 18세기

18세기 간행된 문집은 73건 중 4건으로 5.4%이다. 4건의 문집은 『雪嶽遺稿』(池光翰), 『晚洲遺集』(洪錫箕), 『耕山集』(吳翼煥), 『瀼西集』(李光胤)이다. 이들 중 지광한과 홍석기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서인 노론계 인물이다. 홍석기는 화양동에 있던 송시열과 교유하였다. 오익환 역시 18세기 후반에 정조에게 상소 올려 옥사까지 일어난 노론계 인물이다. 즉 18세기 간행된 문집 4건 중 3건이 노론계 인물의 문집인 것이다. 따라서 18세기에는 주로 노론계 청주 인물들의 문집이 간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19세기

19세기 간행된 문집은 73건 중 10건으로 13.6%이다. 10건 중 서인-노론계 인물로는 池德海·李秀彦·洪靑華·延最績이 있다.

우선 지덕해는 20세에 李春英(우계 성혼 문인)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으며, 1627년 황산서원에서 김장생을 배알하였다. 이수언은 14세가 되던 1649년 송시열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고, 1687

년 한성우윤으로 있을 때, 소론 羅良佐 등이 송시열을 비난하자 송시열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다. 1689년 己巳換局 때 楚山에 유배되었으며, 1695년 대사헌으로 소론인 吳道一을 탄핵하다가 전라도 관찰사로 좌천되었다. 홍주화 역시 송시열의 문인으로 숙종 초 송시열이 유배되자 송시열의 서적을 보관했고, 기사환국으로 仁顯王后가 폐위되자, 朴世輝·韓聖佑 등과 百人疏를 올려 스승의 伸冤을 상소했다. 연최적 역시 송시열의 문인으로 1689년 송시열에게 『곡산 연씨세보』의 서문을 받기도 하였다. 이때 송시열은 연최적에게 “내가 죽은 뒤에 그대들이 從遊·依仰할 자는 오직 權常夏뿐” 이라고 당부하였다. 그해 5월에 연최적은 44명과 함께 연명으로 송시열의 구원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1690년부터 권상하를 쫓아 강학하였다. 1693년에 仁顯王后 폐위의 부당성과 당시 화를 입은 자들의 신원을 바라는 상소를 올려 심한 국문을 받고 32세의 젊은 나이로 옥사하였다. 1779년(정조 3)에는 기사환국 당시 忠節이 인정되어 ‘毅愍’으로 시호를 받았다.

19세기 간행된 문집 10건 중 지덕해·이수언·홍주화·연최적 등 4명이 서인·노론계 인물로 이중 3명은 송시열의 문인이었다. 또 후손들이 노론화한 韓忠·李得胤·박춘무와 이득윤의 아들 李弘有 등 노론계 인물 4인의 문집도 간행되었다. 즉 19세기 역시 18세기에 이어 노론계 인물의 문집이 집중적으로 간행된 것이다.

4. 일제강점기 이후

일제 강점기 문집간행은 73건 중 10건으로 13.6%를 차지한다. 석판으로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인 고령신씨의 문집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신득흥·신좌모의 문집이 먼저 간행되었다. 또 박익동 등 노론·낙론계 인물의 문집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1945년 이후 간행된 것은 73건 중 42건으로 57.5%에 해당한다. 현대판 연필자로 영인하기 시작하였다. 고령신씨와 안정나씨 등 남인들의 문집이 다수 간행하였다. 또한 **아주신씨와 김제환·김성환 등 노론-호론계의 문집이 간행되기 시작한다.**

문집간행의 경우 조선전기 인물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조선후기 간행되었다. 특히 고령신씨나 안정나씨 같은 남인들의 경우 일제강점기 이후에 문집이 간행된다. 즉 인물의 생몰년과 간행 연대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래의 문집이 상당수 유실된 상태로 편찬·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집에는 청주 지역과 인물에 관련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즉 이들 문집을 통하여 조선시대 청주라는 사족 사회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IV. 청주지역 관련 문집내용

문집은 저자가 쓴 모든 부분의 저작물을 모은 일종의 전집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양하다.¹⁴⁾ 그 중 이 글에서 검토하는 73건의 문집은 청주 출신 인물의 문집으로 특히 청주지역과 관련한 유일하고

14) 書牘類에는 당시의 세태상이 투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문적인 심오한 이론이 오가기도 한다. 奏疏類는 政事에 대한 의견을 왕에게 올리는 글이므로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으며, 序跋記類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글이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이 많다. 죽은 이에 대한 글인 哀祭類는 학맥이나 교유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고, 傳狀碑誌類는 事迹이나 개인의 일생사를 적은 것으로 인물 연구의 자료가 된다. 또 문집의 말미에 첨부되는 연보와 행장 역시 그 인물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정확한 기록이므로 인물사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사료가 된다.

도 자세한 지역사 관련 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 즉 조선시대 청주지역의 경관, 유물·유적, 인물, 향촌활동 등에 대한 자료가 문집에 다양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즉 문집은 지역사 연구 자료의 寶庫인 셈이다. 그 중에서 八景과 九曲, 書院과 樓亭, 忠孝烈 인물, 契畵와 詩畵 기록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八景과 九曲

조선에서 朱子의 영향은 주자학의 존승과 함께 「武夷九曲歌」의 차운, 「武夷九曲圖」의 모사, 『武夷志』의 탐독에서 시작하여, 스스로 九曲을 설정하고, 구곡가를 지으며 구곡도를 제작하는 구곡문화로 발전하였다. 특히 18세기부터 구곡은 유행을 현창하는 수단으로 유행하여 전국에 수많은 구곡이 설정되었다.

호서 지역의 경우 송시열이 華陽九曲을 설정하여 경영하였으며, 권상하의 조카 權燮이 「華陽九曲圖」 제작하고 권상하의 은거지에 黃江九曲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구곡을 설정하거나 구곡도나 구곡가를 제작하는 것은 주자의 권위에 기대어 학파의 도통을 가시화하거나 가문의 위신을 과시하는 가시적 상징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즉 18세기 후반이 되면, 큰 업적을 남긴 선현의 거처에 구곡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명분처럼 통용되었던 것이다.¹⁵⁾ 따라서 청주지역에도 많은 팔경과 구곡이 설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그 기록이 그들의 문집에 그대로 남아 전하고 있다.

15) 김덕현, 「무이구곡과 조선시대 구곡경영」, 『안동학연구』 9, 2010, 98~99쪽.

1) 八景

<표14> 팔경을 읊은 시

문 집 명(저 자)	제 목
淸隱實記(李乾孫, 1416~1458)	「寒岳山八景」(1926, 鄭汶 찬)
遯軒集(李弘有, 1588~1671)	「遮川八景」(1628) 「治溪八詠」(1628)
芷潭集(申得洪, 1608~1653)	「鳳凰亭九曲次韻」
竹軒集(申必淸, 1647~1710)	「學稼堂八詠」 「白石亭八景」
癡堂遺稿(延最績, 1663~1693)	「(청주)十二景」
鶴沙集(申顯祿, 1752~1828)	「墨井八景」 1 「墨井八景」 2
小近齋集(朴翼東, 1827~1895)	「竹關八詠」
悔齋遺稿(蔡相學, 1837~1926)	「梧根八景詩」
滄菴集(朴魯重, 1863~1945)	「(청주)城西八景」
隱菴集(朴允燮, 1904~1998)	「爛柯齋石室八景」

먼저 『淸隱實記』(李乾孫)에 실린 「寒岳山八景」은 이건손이 전의 이씨들의 세거지인 청주 구녀성 서쪽 저곡리 한악산 주변의 여덟 풍광 읊은 시이다. 현재 시는 전하지 않고 1926년 鄭汶이 찬한 팔경에 대한 설명만 『청은실기』에 전한다. 「한악산팔경」 중 제1경은 「飛鴻鳴雁」이다. 비룡마을 앞으로 기러기가 나는 풍광을 읊었다. 제2경은 「細橋漁火」이다. 세교 마을 石川의 물고기를 읊었다. 제3경은 「牛山落照」이다. 우산마을의 낙조를 노래하였다. 제4경은 「開花春雨」이다. 개화 들에 내리는 봄비를 노래하였다. 제5경은 「椒井細流」이다. 약수인 초정의 물줄기를 노래하고 있다. 제6경은 「虎鳴點雪」이다. 호명 골짜기에 있는 얼룩바위의 백옥글씨를 노래하고 있다. 제7경은 「玉女半月」이다. 가을날 반달이 옥녀산에 비치는 모습을 노래하였다. 제8경은 「九女暮雲」이다. 구녀산성 안 고찰 터에 노을이 지려할 때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遯軒集』(李弘有) 권4에 「遮川八景」이 실려 있는데,

1628년에 저자 이홍유가 자신이 살았던 청주 차천의 팔경을 읊은 것이다. 또 「冶溪八詠」은 1628년 7월에 지은 것인데, 저자와 각별했던 신지익이 살았던 청주 야계의 팔경을 노래하였다. 소표제는 「命峯霽月」·「道洞新花」·「松村暮煙」·「妙谷朝霞」·「樂山飛雪」·「敬峴驟雨」·「禾寺樵僧」·「巨川釣叟」이다.

「鳳凰亭九曲詩」은 『芷潭集』(申得洪)에 실려 있는데, 소표제는 「咏歸潭」·「海棠岸」·「傘松臺」·「太古齋」·「觀德亭」·「釣魚磯」·「繫舟浦」·「芳草洲」·「愛蓮渠」이다.

『竹軒集』(申必淸)에는 1673년에 신필청이 夏谷의 竹溪 위에 지은 學稼堂의 주변 경치를 노래한 「學稼堂八詠」을 비롯하여 신필청의 從叔 申灑가 지은 낭성 관정리 소재의 白石亭과 관련한 「白石亭八景」 등이 실려 있다.

『癡堂遺稿』(延最績)에 실린 「十二景」은 청주 인근 풍광을 읊은 것으로 소표제는 「牛山春色」·「鵲川秋光」·「竹嶺殘雪」·「鳳巖晴嵐」·「石橋灘聲」·「銅檣鶴唳」·「北樓晚籟」·「西齋暮鐘」·「上黨煙霞」·「頭陀雲月」·「薑洞夕照」·「槐亭午陰」이다.

『鶴沙集』(申顯祿)에는 고령신씨가 모여 살고 있었던 墨井里 경관을 묘사한 연작시 「墨井八景」 1과 2가 실려 있다. 「묵정팔경」 1의 소표제는 「鶴山夜雨」·「鳳台歸雲」·「石峯晴嵐」·「玉溪霽月」·「楸嶺落照」·「棠谷暮煙」·「沙灘漁歌」·「奕坪牧笛」이다. 「묵정팔경」 2의 소표제는 「鶴寺遠鍾」·「鳳台歸雲」·「石峯晴嵐」·「玉溪霽月」·「楸嶺落照」·「棠谷暮煙」·「沙灘漁歌」·「奕坪牧笛」이다.

‘竹關’ 또는 ‘竹館’은 순천박씨들이 대대로 살던 청주 福臺里의 또 다른 이름이다. 『小近齋集』(朴翼東) 「竹關八詠」에서는 바로 박익동이 살았던 죽관, 즉 북대리의 팔경을 읊고 있다. 1경부터 8경까지 소표제는 「上黨霽月」·「牧菴曉鐘」·「八峰歸雲」·「東林淸風」·「孃山落照」·「獨山孤松」·「蘆坪暮雨」·「鞦川漁火」이다.

「梧根八景詩」는 『悔齋遺稿』(蔡相學) 권1에 실려 있는 것으로 채상학이 고향인 청주 오근의 풍광 읊은 것이다.

「(청주)城西八景」은 『滄菴集』(朴魯重) 권4에 실려 있는 것으로 청주 서쪽의 팔경을 읊은 것이다.

「爛柯齋石室八景」은 『隱菴集』(朴允燮) 권1에 실려 있는데, 저자가 살았던 청주 남이 석실리 주변의 여덟 가지 풍광을 노래한 것이다. 소표제는 「鳳山朝雨」·「龍山暮雲」·「玉溪暮烟」·「千方冷泉」·「櫓峰霽月」·「帽峰落照」·「螺峰靑松」·「竹林淸風」이다.

2) 九曲

구곡을 읊은 시는 『遯軒集』(李弘有, 1588~1671)과 『芷潭集』(申得洪, 1608~1653)에 실려 있다. 『둔헌집』에 실린 「敬次樂愚堂主人九曲韻」은 저자 이홍유가 읊은 것으로 소표제는 「咏歸潭」·「海棠岸」·「傘松臺」·「太古齋」·「觀德亭」·「釣魚磯」·「繫舟浦」·「芳草洲」·「愛蓮渠」이다.

『지담집』에 실린 「鳳凰亭九曲次韻」 신득홍이 읊은 것으로 소표제는 「咏歸潭」·「海棠岸」·「傘松臺」·「太古齋」·「觀德亭」·「釣魚磯」·「繫舟浦」·「芳草洲」·「愛蓮渠」이다.

2. 書院과 樓亭

1) 書院·祠宇

청주지역 서원·사우 중 가장 문집에 많이 기록된 서원이 莘巷書院이다. 신항서원은 호서지방에서 보은의 象賢書院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으로, 1570년(선조 3)에 청주 서주내면 유정리에 건립, 1660년 사액되었다. 慶延·朴薰·金淨·宋麟壽 등 4인을 제향하였다. 1632년 韓忠 추향, 1650년 宋象賢 추향, 1656년 李穡과 李珥,

1665 년 서원건립을 주도했던 이득운을 추향했다. 1871년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훼철되었다.

<표15> 청주지역 서원사우 관련 문집 내용

서원명	건립/사액연대	문집명(저자)
莘巷書院	1570/1660	江叟遺稿(朴薰) 松齋集(韓忠) 圭菴集(宋麟壽) 西溪集(李得胤) 隱菴集(朴允燮) 滄菴集(朴魯重)
機巖書院	1699	琴巖文集(吳燾) 錦史文集(盧章愚)
菊溪書院	1701	訥齋遺稿(朴增榮) 德谷遺稿(朴廷龍)
壽樂書院	.	禾谷集(鄭賜湖) 西溪集(李得胤)
三忠祠 (表忠祠)	1731	漢源遺稿(盧兢) 滄菴集(朴魯重)
松泉書院	1695	慕溪集(趙綱)
雙泉書院	1695	竹軒集(申必淸)
棣華書院	1701	錦史文集(盧章愚)
儉岩書院	1661	東谷遺稿(尹在赫)

신항서원과 관련된 기록은 제향인물인 박훈·한충·송인수·이득운의 문집에 많이 실려 있다. 즉, 『江叟遺稿』(朴薰)에 「有定書院江叟先生春秋祝文」·「莘巷書院賜額後移建上樑文」·「莘巷書院廟庭碑(宋時烈)」가 실려 있으며, 『松齋集』(韓忠) 권5에 「莘巷書院奉安祭文(李廷龜)」, 『圭菴集』(宋麟壽) 권3에 「莘巷書院奉安三先生文(이득운)」·「莘巷書院講堂重建上梁文(趙復陽)」, 『西溪集』(李得胤) 잡저에 「辭有定院長文」·「再辭有定院長文(1608)」·「莘巷書院祝文」가 실려 있다. 그 외 서인·노론계 인물인 朴允燮의 『隱菴集』 권2에 「莘巷書院誌序」가 실려 있고, 朴魯重의 『滄菴集』에 「癸卯七月任莘巷書院有司」라는 시가 실려 있다.

幾巖書院은 1699년(숙종 25) 청주 오창 機巖리에 姜栢年을 제향하여 건립된 서원이다. 1826년에 吳燾을 추향하였다. 1871년에 서

원혜철령으로 훼손되었다. 역시 제향인물인 오숙의 문집에 관련 기록이 실려 있다. 즉 오숙의 『琴巖文集』 권2 「享機巖書院多士通論文」에는 「機巖書院發文 一」·「機巖書院發文 二」·「鄉校通文」·「棣華院發文」·「竹溪院回通文」·「雙泉院回通文」·「鳳溪院回通文」·「龜巖院回通文」 등이 실려 있다. 『錦史文集』(盧章愚) 권5에도 실려 있는데, 「機岩書院重建事績碑文」은 장편의 비문이다. 「機岩書院重建上樑文」은 제향인물인 강백년과 오숙의 학덕을 논하고, 移建復設의 부득이함을 서술하였다. 또 「機岩書院重建發起通告文」에서 서원의 증건에 협조를 호소하였다.

菊溪書院은 1701년(숙종 27) 청주 북일 비중리에 건립되었으며 朴增榮·卞景福·李德洙·李秀彦을 제향하였다. 1871년 서원혜철령으로 훼손되었다. 제향인물인 박증영의 문집 『눌재유고』에 「菊溪書院祠宇開墓祝文」·「菊溪書院移建上樑文」·「菊溪書院訥齋先生奉安文」·「菊溪書院訥齋先生春秋享祝文」가 실려 있다. 또 박증영의 후손 박정용의 문집 『德谷遺稿』에 「通文」이 실려 있는데, 朴世美를 국계서원에 배향해 줄 것을 청주 유생들에게 요청한 것이다.

壽樂書院은 문집 외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득운과 鄭賜湖가 살았던 수락에 세운 서원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문집인 『서계집』 「壽樂書院祝文」과 『禾谷集』 권2 「壽樂書院春秋享祝文」(李光正)에 각각 기록이 남아있다.

三忠祠(表忠祠)는 『漢源遺稿』(盧兢)의 「朴倡義使敏雄配享本邑三忠祠詞議」과 『滄菴集』(朴魯重)의 「표충사」에 기록이 전한다.

그 외 松泉書院은 조강의 『慕溪集』 권3에 「院享祝詞」·「院宇上梁贊」·「松泉書院上樑文」·「配享位次」가 실려 있다. 雙泉書院은 『竹軒集』(申必淸) 「雙泉書院上樑文(신필청)」, 棣華書院은 『錦史文集』(盧章愚) 「棣華堂祠重修上樑文」에 각각 그 기록이 남아있다. 또 儉岩書院은 『東谷遺稿』(尹在赫)의 「次忠孝祠韻」으로 전한다.

즉 9개소 청주 서원·사우 기록이 청주 출신 인물들의 문집에 자세 한데, 신항서원에 대한 기록이 6개의 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또 제 향인물의 문집에 서원관련 기록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樓·亭·堂

<표16> 누정당 관련 기록

	명칭	관련 기록이 있는 문집명(저자)
樓	拱北樓	蕙田集(羅獻容)
	望仙樓	滄菴集(朴魯重)
亭	白石亭	竹軒集(申必淸) 蘇眉遺稿(申轍雨) 楠溪遺稿(申昌模) 苟堂集(申秉休)
	洗心亭	主一齋集(尹承任)
	後雲亭	晚洲遺集(洪錫箕)
	杏 亭	栢峯集(李弘濟)
	東阜亭	栢峯集(李弘濟)
	養心亭	晚軒遺稿(申相烈)
	新 亭	晚軒遺稿(申相烈)
	槐木亭	滄菴集(朴魯重)
堂	悠然堂	禾谷集(鄭賜湖)
	追遠堂	小山集(李萬憲)
	學稼堂	竹軒集(申必淸)
	三錫堂	滄菴集(朴魯重)
	相淸堂	滄菴集(朴魯重)
	一梧堂	滄菴集(朴魯重)
	主一齋	主一齋集(尹承任)

樓閣으로 공북루와 망선루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 拱北樓는 청주 읍치소에 있었던 누각이다. 羅獻容(1851~1925)의 『蕙田集』 「拱北樓」에 그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望仙樓는 고려시대 건물로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의하면 객관 동쪽에 있어 聚景樓라 하

었다.¹⁶⁾ 朴魯重의 『滄菴集』에 「望仙樓」라는 제목의 시가 2개 수록되어 있는데, 망선루의 역사와 경치가 기록되어 있다.

亭子 중에 가장 많은 기록이 문집에 남아있는 곳은 백석정이다. 白石亭은 申灑가 1677년에 청주 낭성 官井里 지담가 바위 위에 세운 정자이다. 조선시대 관정리의 백석정은 경상북도 상주 일대와 보은 일원에서 청주를 거쳐 서울로 가는 길목으로 많은 선비들이 지나다니는 교통의 요지였다. 백석정 관련 기록은 후손인 申必淸과 申轍雨·申昌模·申秉休의 문집에 실려 있다. 신필청의 『竹軒集』 권7에서 從叔 申灑가 지은 백석정에 관하여 「白石亭八景」·「白石亭呼韻」·「又四韻」·「白石亭記」 등의 기록을 남겼다.¹⁷⁾ 신철우의 『蘇眉遺稿』에 「登白石亭」·「白石亭與蓮雲李惠九族大父楠溪」·「登白石亭與諸益吟」이 실려 있는데, 백석정 근처를 노닐면서 지은 시이다. 또 신창모의 『楠溪遺稿』에 「重建白石亭記」는 백석정의 유래와 백석정 중건 관련 내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병휴의 『苟堂集』에 「登白石亭晚賞」(1918)·「登白石亭」(1920)에는 백석정과 그 주변의 경치가 잘 기록되어 있다.

洗心亭은 1646년 尹承任(1603~1688)이 청주 미원 玉花里에 세운

16) 고려 공민왕은 1361년에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자 안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청주에서 수개월 피신하였다. 그해 11월 홍건적의 난이 평정되자 기뻐하여 청주에서 문과와 監試를 행하고 합격자의 방을 이곳 망선루에 붙였다고 한다. 그 후 퇴락했던 건물을 1461년(세조 7)에 牧使 李伯常이 중수하고 韓明滄가 편액을 망선루라 개칭하였다.

17) 그 중 「우사운」을 보면 “화학산 북쪽에, 정자 있으니 백석정이라. 바위에 잔교 놓으니 바위가 주춧돌 되고, 그림자 수면에 비치니 물결 따라 난간 일렁이네. 달빛 들어 창문이 환하고, 산 바로 있어 궤석마저 푸르네. 이문을 비웃는 세속의 손아, 이 초당에는 신령이 있단다.(震鶴山之北, 有亭白石亭. 架巖巖作礎, 影水水搖櫺. 月入軒窓白, 山當几席青. 移文呵俗客, 知有草堂靈.)”라고 하였다. 또 「백석정기」에는 백석정의 건립 연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자이다. 윤승임의 문집인 『主一齋集』에 「洗心亭重建記」(1865, 宋近洙), 「洗心亭重建記」(1868, 金述鉉), 「洗心亭重建韻」(金東集)가 수록되어 있다.

後雲亭은 洪錫箕가 말년에 남원목사를 끝으로 남양홍씨들이 자리잡고 있는 청주 판교리(현 청주 미원면 수산리)로 은거하면서 지은 정자이다. 그는 이곳에 머무르면서 華陽洞에 있던 宋時烈과 교유하면서 학문을 연마하고 시사를 담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홍석기의 문집 『晚洲遺集』 권2 「後雲亭憶朴尙書久堂」, 권3 「後雲亭呼韻」, 권5 「後雲亭六韻」, 권6 「後雲亭會遊詩序」·「後雲亭記」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중 「後雲亭記」는 후운정의 기문이다. 청주 檢丹山은 최치원이 산천을 유람하다 머물렀다던 곳으로 홍석기가 그 곳에 정자를 짓고, 孤雲 崔致遠의 뒤를 이었다는 뜻을 담고 산곡 사이에 은거하는 자신을 계곡에 머무는 구름에 빗대어 後雲이라 이름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만현의 『소산집』에도 「後雲亭」와 홍석기의 부탁으로 쓴 「後雲亭記」가 실려 있다.

杏亭은 李弘濟의 선조가 기암리 근처에 세웠던 정자로 현재는 없다. 이흥제의 문집 『栢峯集』 권2 「杏亭記」에 행정 짓던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東臯亭은 1612년 李英吉이 청주 오창 가곡리에 세운 정자이다. 이영길의 후손인 이흥제의 『백봉집』 권2 「東臯亭記」에 선조 이영길이 佳谷里에 복거하면서 동고정을 짓고 풍경을 즐긴 일을 기록하였다.

養心亭은 청주 水落洞에 있는 金雅의 정자이다. 이에 대한 기록은 『晚軒遺稿』(申相烈) 권하 「養心亭記」라는 기록이 있다.

新亭은 청주 松洞 아주신씨들이 살던 마을에 지은 정자로 『만현유고』(신상열) 「新亭記」에 그 연혁이 자세하다.

悠然堂은 鄭賜湖가 1609년 무렵 이득윤이 거쳐하던 수락동 인근 和谷(현 청주 미원 화창리)에 지은 집이다. 이득윤은 정사호와 자주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하였다. 정사호의 문집인 『禾谷集』 권 1 「悠然堂夜坐」·「悠然堂與鄭古玉礮同賦」, 권3 「悠然堂記」(李春英)에 실려 있다.

追遠堂은 1609년 이득윤이 미원면 옥화리에 지은 집이다. 1898년 증건하였다. 이득윤의 손자인 李萬憲의 『小山集』에 「追遠堂記」가 있다.

學稼堂은 1673년에 신필청이 夏谷의 竹溪 위에 건축한 것이다. 申必淸의 『竹軒集』에 학가당의 주변 경치를 노래한 「學稼堂八詠」이 있다.

主一齋는 윤승임의 집이다. 송시열은 1674년 2월 주일재에 대한 글인 「主一齋箴」을 지어주었는데, ‘정자가 主一을 경으로 논하고 靜할 때는 存心하고 動할 때는 應事하여 아무리 바쁘고 위급한 사이에도 일체 여기에 주력하여 모든 人慾이 날로 사라져서 결국 天理로 돌아온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며 주일재의 주인인 윤승임에게 誠敬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글이다. 이어 柳星緯의 「主一齋記」, 吳泰基의 「主一齋詩序」, 鄭瑠의 「主一齋堂序」, 宋煥箕의 「主一齋重建記」, 李慶茂의 「主一齋尹先生行蹟」이 있다.

이상 17개소의 누·정·당의 기록이 문집에 자세한 것을 살펴보았다. 기록에 나타난 누·정·당은 특히 미원과 낭성 일대에 많은데, 미원에 세심정·양심정·추원당·유연당·주일재가 있고, 낭성에 백석정·신정이 있다. 또한 누·정·당의 기문 기록 역시 건립한 사람의 문집이나 후손의 문집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忠孝烈 인물

1) 義兵

문집에 기록된 청주 출신 의병으로는 朴春茂(1544~1611), 李時發

(1569~1626)이 있다. 먼저 박춘무의 본관은 順天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592년 7월 14일에 의병을 일으키고 李時發·韓赫을 從事官으로 삼아 의병을 모집하였다. 趙憲과 합세하여 왜적으로부터 청주성을 탈환하였다. 이후 박춘무는 鎭川으로 향하여 아들 朴東命·아우 朴春蕃와 함께 진천을 수복하는 공을 세웠다. 보은의 後栗祠에 조현과 함께 제향되었다.

박춘무의 문집 『花遷堂集』에 의병관련 기록이 자세하다. 권1에 수록된 2편의 격문은 적과 싸워야 한다는 마음을 고취시킨 글로, 이 시말의 『碧梧遺稿』에도 동일한 문장이 실려 있다. 다음으로 舉義할 때 자손에게 준 遺文은, 오랑캐들이 침입함에 충의의 선비들이 적을 섬멸하는데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에는 朴聖源이 지은 「三代倡義錄」 서문이 있다. 삼대는 박춘무와 그의 아들 박동명, 손자 박홍원을 말한다. 박동명은 임진왜란 때에도 부친 박춘무와 의병 활동을 하였으며, 병자호란 때 廣州·茂溪에서 殉死하였다. 손자 박홍원은 李适의 난에 의병을 이끌고 나아가 張晩의 휘하에서 鞍峴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권3은 잡저로 박춘무가 의병을 일으켰다는 보고를 접한 것을 초록한 「壬辰日記」가 있으며, 그 다음의 「舉義時事」에서는 청주와 진천에서의 의병활동을 기술하고 이후 증직 받은 것을 기록하였다. 「壬辰錄」은 박춘무와 아들 박동명의 의병 활동을 초록한 것이며, 「春坡堂錄」은 박춘무가 右義大將이 되어 錦江 이상의 적을 방어하였다는 초록이다. 柳成龍의 「懲毖錄」에는 충청도에서 박춘무가 의병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조현의 「抗義篇」에는 박춘무의 인품과 그가 우의대장이 되어 아들 박동명과 함께 공을 세웠다는 기록이 담겨 있다. 「징비록」과 「항의편」은 유성룡과 조현의 기록을 각각 가져다 초록한 것이다. 公忠道 幼學 李源禮의 「上言草」는 박춘무·박동명·박춘번은 임진왜란에 공이 있고, 손자 박홍원은 이괄의 난에 공을 세

우고, 후손 朴之堧와 朴敏雄은 1728년 영조대 무신란에 공을 세운 일을 상언하고 포상을 청한 내용이다.

임진왜란 때 역시 의병으로 활약한 이시발은 호가 碧梧, 본관은 慶州이다. 族祖인 李得胤에게 수학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청주로 내려가 박춘무와 함께 의병을 모집하였다. 1596년 7월 李夢鶴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掌樂正에 제수되었다. 그 해 겨울 왜군이 다시 침략하자 贊劃使가 되어 忠州 德周山城을 쌓고 또 鳥嶺에 목책을 설치하였다. 1597년 가을에 왜적과 청주에서 싸웠으나 패하였고, 겨울에 분조의 호조 참의가 되어 明軍의 군량 수급을 맡았다. 『벽오유고』 권6 잡저에 임진왜란 때 박춘무와 함께 起兵할 때 지은 「仁義陣檄」이 전한다.

그 외 『梅齋遺稿』(蔡相學)의 「贈司憲府持平朴友賢行狀」에서는 임진왜란 때 박우현이 21세의 젊은 나이로 의병을 일으켜 청주의 서문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희생되었고, 그로부터 4일 후에 조현이 거느린 의병이 왜적과 싸워 청주를 탈환한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2) 한말 절의 인물

문집을 남긴 한말 절의인물로는 金濟煥(1867~1916)·金成煥(1875~1957) 형제와 그들의 제자인 申學錫(1894~1939), 또 김복한의 제자인 申海澈(1900~1941)이 있다. 이들의 문집에는 자신들의 항일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자세하게 실려 있다.

김제환의 본관은 金海이고, 청주 낭성 梨木里 陽村에서 태어났다. 22세에 朴文鎬의 門人이 되었다. 즉 김제환은 송시열·권상하·한원진·박문호로 이어지는 노론·호론계 인물이다. 1913년 5월 호적입적·납세·부역 등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6개월 형을 받고 복역하였다. 문인 신학석·申榮泰·李鍾萬·卞榮寅 등과 항일운동을 계속하던 중 1916년에 보안법 위반혐의로 다시 투옥되어 심한 고문과

강제 식발을 당하였다. 출옥 후에 순국을 결심하고 仙到山에 들어가 단식하여 1916년 10월 5일에 순국하였다. 197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김제환의 문집인 『素堂集』은 맨 앞에는 굳건한 항일 의지를 피력한 「哀海東賦」가 실려 있다. 「寄米院日憲兵所長」은 저자의 이름이 일본의 호적에 입적된 것을 거부하는 내용이다. 「明日錄示」에서는 헌병이 찾아와 협박하고 문답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다음 「述志」·「述志後書」에서는 저자가 왜적의 경찰서에서 자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先塋의 곁에 가서 순절할 것을 직접 쓴 것이다. 「告尤庵先生墓文」은 저자가 순절하기 며칠 전에 송시열의 묘에 배알하고 고유한 것으로, 저자는 일본의 국민이 될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것만이 갈 길임을 고하였다. 「告訣家廟文」에서도 일본인에게 치욕을 당하고 차라리 罔僕自靖의 길을 택하겠다고 하였다. 魚喚醒이 지은 묘지명과 申泰求가 지은 「眞像贊」과 아우 김성환이 지은 「遺事」에도 저자의 항일·학문·행적 등을 소상하게 밝혔다. 스승 朴文鎬의 제문에도 ‘老不死之慚制人’이라 자칭하면서 제자의 순절을 애도하였다.

김성환은 김제환의 아우로 1910년 한일병합 이후 형과 마찬가지로 1913년 호적입적 납세 부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간 복역하였다. 『소당집』 권1의 「自悼賦」는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하면서 차라리 죽어 지하에 가서 先聖·先王·先人을 보고 不事二君한 사람들과 함께 놀았으면 좋겠다는 志節을 드러냈다. 권4의 「雪窩日記」에서는 저자 형제가 일본에게 핍박 받은 수난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저자의 형이 입적을 거부한 일로 체포되어 갇은 옥을 당하자 저자도 함께 들어가 대항하면서 형제가 구타를 당하고 수모를 당함은 물론 협박·유인·구속을 당하고 몇 번 자살을 시도한 것 등등이 기록되어 있다. 형이 순국하자 제문 「祭伯氏素堂先生文」를 지어 형

제간의 애통한 정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한말 청주 출신의 의병장이었던 신학석의 본관은 鵝洲이다. 박주순과 김제환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913년 김제환·신영태·이종만·변영인 등과 항일운동을 했다. 신학석은 노론-호론계 인물로 변영인·김제환 등과 위정척사의 정신으로 항일운동 참여하였다. 저자의 문집 『退雲集』 권2는 스승 김제환과 그 문인들, 친족들과 주고받은 글 21편이 실려 있다. 권6은 부록으로 김성환이 쓴 行狀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19년 파리장서사건을 보필한 申海澈(1900~1941)의 본관은 平山이다. 부친은 申鉉基이며, 청주 서촌동에서 태어났다. 홍성에 사는 金福漢의 문인이 되었으며, 스승에 감화되어 우국의 신념이 깊었다. 김복한이 파리장서사건에 참여함에 저자도 보필하였다. 신해철의 문집인 『우석고』에는 김복한 문하의 동문들과 지은 시가 가장 많다. 김복한의 挽章은 오언 장편으로, 나라가 망하고 일본인의 세상이 됨에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문물이 夷狄이 됨을 통탄하면서 스승 김복한이 감옥에서 고초를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

3) 孝烈婦

<표17> 문집에 있는 효열부 기록

문집명	내용
碧梧遺稿(李時發)	「羅氏 烈女傳」
素堂集(金濟煥)	「學生金公事實記」「孺人李氏事實記」「孺人朴氏事實記」「孝子湖隱延公行狀跋」
錦史文集(盧章愚)	「南基奐傳」「節孝婦文化柳氏傳」
蔡相學(齋遺稿)	「孝婦尹氏傳」
友石稿(申海澈)	「烈婦申氏行狀」
滄菴集(朴魯重)	「祠傍海月旌閭碑閣」「慶徵君旌門」

효열부에 대한 기록은 6개의 문집, 11개의 기록에 자세하다. 『碧梧遺稿』(李時發) 권6 잡저에서는 이시발의 스승인 이득운의 양모인 열녀 나씨에 대한 「羅氏烈女傳」이 있다. 『素堂集』(金濟煥) 권8의 「學生金公事實記」에는 김공의 효성을 찬양하였고, 「孺人李氏事實記」에서는 이씨의 정절과 효성 기록하였으며, 「孺人朴氏事實記」에서는 박씨의 련행을 기록하였고, 「孝子湖隱延公行狀跋」에서는 효자의潛行이 남과 다른 점을 찬양하였다. 『錦史文集』(盧章愚) 권5 「南基奐傳」과 「節孝婦文化柳氏傳」에서는 각각 효자 南基奐과 절효부 文化柳氏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悔齋遺稿』(蔡相學)의 「孝婦尹氏傳」에서는 媿父가 만년에 앞을 보지 못하자 성심껏 효성을 다하여 간호한 윤씨의 효행을 기록하고 있다. 『友石稿』(申海澈)의 「烈婦申氏行狀」은 李仲坤의 부인 신씨의 열행을 기록하였다. 『滄菴集』(朴魯重)의 「祠傍海月旌閭碑閣」은 洪霖의 房妓 海月の 열녀정문을 영조대에 세운 것에 대한 내용이고, 「慶徵君旌門」은 慶延의 효행에 대한 내용 기록이다.

4. 契會와 詩會

<표18> 문집에 있는 계회·시회 기록

	문집명	내용
契會	遜軒集(李弘有)	「飛鴻四老會」
	四愚齋集(申允模)	「四老會圖」「四老人會帖詩」
詩會	隱菴集(朴允燮)	권1 「明岩藥水井詩會」·「淸州無心川雅會」·「鵲江詩會」·「懸寺醉石亭詩會」·「秋月亭雅會」·「上黨山城詩會」
	松隱詩集(羅相岳)	「忠北鄉友會結團詩」·「歎淸風古蹟水沒韻」·「淸州詩友會員娛遊老人亭」

계회의 모습은 李弘有(1588~1671)의 문집 『둔헌집』 「飛鴻四老會」에 자세하다. 「비홍사로회」는 1656년 모임을 결성하고 지은 시인데, 모임에 참여한 ‘飛鴻四老’는 柳濟夫(당시 76세)·羅子悅(당시 76세)·李義源(당시 81세)·이홍유(당시 69세) 네 사람이다.

申允模(1784~1853)의 『四愚齋集』에도 계회에 관한 기록이 있다. 즉 1책에 申學權이 그린 「四老會圖」가 수록되어 있다. 四老人會는 신윤모가 만년에 墨井 雙鶴山에 거할 때 李相基·신학권·申善模와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림에 이어 「四老人會帖詩」가 있다.

시회와 관련된 기록은 비교적 근대의 문집에서 많이 보인다. 羅相岳(1893~1979)은 『松隱詩集』에서 「忠北鄉友會結團詩」·「歎清風古蹟水沒韻」·「淸州詩友會員娛遊老人亭」 등 청주 上黨詩壇의 시회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 朴允燮(1904~1998)의 『隱菴集』에는 청주인근 사는 詩友들과 시회 여는 모습 읊은 시가 다수 있다. 즉 권1 「明岩藥水井詩會」·「淸州無心川雅會」·「鵲江詩會」·「懸寺醉石亭詩會」·「秋月亭雅會」·「上黨山城詩會」에서는 명암·무심천·까치내·취석정·추월정·상당산성 등 등 청주인근 사는 詩友들과 시회 여는 모습이 자세하다.

이상 지역 관련 내용 중 팔경을 읊은 문집은 10건, 구곡을 읊은 문집은 2건이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큰 업적을 남긴 선현의 거처에 구곡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명분처럼 통용되면서, 청주지역 선비 역시 많은 팔경과 구곡을 설정하였고 그 기록이 문집에 자세한 것이다.

書院·祠宇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것이 9개소로, 청주 출신 인물들의 문집 중 보통 제향인물의 문집에 서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누·정·당의 경우 17개소의 기록이 문집에 자세한 것을 살펴보았다. 기록에 나타난 누·정·당은 특히 미원과 낭성 일대에 많은

데, 미원에 세심정·양심정·추원당·유연당·주일재가 있고, 낭성에 백석정·신정이 있다. 또한 누정 기문 기록 역시 건립한 사람의 문집이나 후손의 문집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忠孝烈 인물의 경우 문집에 기록된 청주 출신 의병으로는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朴春茂·李時發이 있다. **문집에 기록된 한말 절의인 물로는 金濟煥·金成煥·申學錫·申海澈을 들 수 있다. 효열부에 대한 기록은 6개의 문집 기록이 자세하다.**

契會에 대한 기록은 2개 문집, 詩會에 대한 기록도 2개 문집에 실려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시대 청주 지역 인물 73명의 문집간행과 그 의미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먼저 저자를 출생연도별로 나누어 간행 인물의 성격을 검토해 본 결과 첫째, 15세기 출생인물 5명이 문집을 남기고 있는데, 이중 4명이 이거사족으로 조선시대 청주지역에서는 土姓보다는 移居士族들을 중심으로 문집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문집을 남긴 73명 중 19세기 이후 출생인물이 2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중 老論-洛論계 艮齋學派와 老論-湖論계 인물들이 많이 문집을 남겼다. 셋째, 두 번째로 많은 인물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세기에 출생한 인물로 15명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李得胤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넷째, 영조대 戊申亂이 있었던 18세기 청주 출생인물들은 이전 시기 출생 인물들에 비해 문집 간행한 경우가 적었다.

다음으로 문집 저자를 성씨별로 나누어 그 성격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청주지역에 세거했던 30개 성씨가 문집을 남기고 있는데,

첫째, 退溪學派이자 南人으로 알려진 高靈申氏 15명이 문집을 남겨 가장 많이 남긴 성씨가 되었다. 다만 고령신씨들의 문집의 간행은 모두 20세기에 와서 이루어졌다. 둘째, 서인-노론계로 알려진 順天朴氏가 두 번째로 많은 6건의 문집을 남겼다. 그러나 1명을 제외하고는 19-20세기 인물이며, 간행 역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20세기 이후에 간행되었다. 셋째, 노론계인 密陽朴氏가 5건의 문집을 남겼다. 그러나 인물 생몰년은 고령신씨나 순천박씨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인 15세기-17세기 출생 인물이 문집을 남기고 있다. 또 문집 간행도 17세기부터 이루어진다. 넷째, 노론-호론계의 가문 鵝州申氏도 5건의 문집을 남겼다. 다섯째, 慶州李氏는 5건의 문집을 남겼다. 이들은 모두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청주에서 살다간 이득운을 중심으로 한 인물이었다.

다음으로 청주지역 출신 인물 73명의 문집간행 양상을 간행시기 별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17세기에 간행된 문집은 3건으로 4.1%이다. 모두 旆州姜氏와 밀양박씨 가문의 문집이다. 이들 가문은 청주에서 가장 먼저 17세기에 문집 간행할 정도로 당대에는 가문의 학문적·사회적·경제적 위상이 컸다. 18세기 간행된 문집은 4건으로 5.4%이다. 19세기 간행된 문집은 10건으로 13.6%이다. 18,9세기는 모두 노론계 인물의 문집이 집중적으로 간행된 특징을 보인다. 일제 강점기 문집간행은 10건으로 13.6%이다. 남인 고령신씨 문집과 노론-낙론계의 문집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1945년 이후 간행된 것은 42건으로 57.5%에 해당한다. 남인들의 문집이 다수 간행되기 시작했으면 노론-호론계 인물의 문집도 간행된다.

간행시기를 검토해 본 결과 극히 일부 문집을 제외하고는 인물의 생몰년에 비해 편찬연대가 상당히 늦게 편찬 간행되었으므로 원래의 문집이 상당수 유실된 상태로 편찬·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집에는 청주 지역과 인물에 관련

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즉 이들 문집을 통하여 조선시대 청주라는 사족 사회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집의 지역 관련 문집 내용을 검토하였고, 그 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조선후기 사족 거처의 필수요소로 통용되었던 八景과 九曲을 읊은 문집을 정리해 보았는데, 팔경을 읊은 문집은 10건, 구곡을 읊은 문집은 2건이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선현의 거처에 설정되는 구곡은 하나의 필수요소로 통용되었다. 청주지역 선비 역시 많은 팔경과 구곡을 설정하였고 그 기록이 문집에 자세한 것이다.

조선시대 지역사족들의 대표적 공간인 書院·祠宇나 樓·亭·堂과 관련된 기록 역시 문집에 자세하다. 서원·사우의 경우 문집기록에 나타난 것이 9개소로, 6개의 문집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제향인물의 문집이었다. 누·정·당 17개소의 기록은 20개의 문집에 자세하였다. 누·정·당의 기문 기록 역시 건립한 사람의 문집이나 후손의 문집에 실린 것을 볼 수 있었다.

忠孝烈 인물의 경우 임진왜란때 활약한 朴春茂·李時發, 한말 절의 인물인 金濟煥·金成煥·申學錫·申海澈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孝烈夫에 대한 기록은 6개의 문집에 기록이 자세하였다. 契會에 대한 기록은 2개 문집, 詩會에 대한 기록도 2개 문집에 실려있다.

현재 조선시대에 간행된 문집은 전국에 총 몇 건이 있는지조차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이 글의 한계는 청주 인물의 문집이 더 발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글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기와 비교하여 조선시대 청주지역 문집 간행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존 영남지역에 국한되어 검토되었던 문집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청주 출신 인물 73명의 문집의 목록화와 내용 분석, 의미부여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역 인물의 문집 간행이 지역사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문집을 간행한 인물의 성격이나 시기별 문집 간행 양상이 청주 지역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주 지역 인물의 문집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지역 연구 자료로 유일하고도 다양하면서 자세한 기록이 매우 많은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 자료로서 문집이 가지는 중요성과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논문접수: 2016. 6.11, 심사시작: 2016. 6.12, 심사완료: 2016. 6.26.]

<부록>

<표> 조선시대 청주지역 인물의 문집간행 현황(73건)

	문집명	본관	저자명	생물년	편자	서문 (연대)	발문 (연대)	권/ 책	판종	간행년 (초간)
01	淸隱實記	全州	李乾孫	1416 ~1458	후손 柱燁	崔東謙의	후손 柱燁 (1974)	不分 /1	木板	1974
02	訥齋遺稿	密陽	朴增榮	1464 ~1493	후손 廷龍	宋時烈	.	2/2	木板	1666
03	江叟遺稿	密陽	朴 薰	1484 ~1540	후손 廷龍	宋時烈	.	2/2	木板	1666
04	松齋集	淸州	韓 忠	1486 ~1521	후손 範世	金基纘	韓用翼	7/2	活字	1889
05	圭菴集	恩津	宋麟壽	1499 ~1547	후손 台憲 등	宋秉瑤	13세손 台憲	4/2	石板	1907
06	慕溪集	漢陽	趙 綱	1527 ~1599	13세손 喆衡 등	宋台憲· 趙得年	金駿榮·趙喆衡	4/2	木活字	1904
07	花遷堂集	順天	朴春茂	1544 ~1611	9세손 夏東	宋秉瑤	朴夏東	3/1	木活字	한말
08	靜觀齋集	高靈	申 渚	1544 ~1588	申涌 12세손 存植	申伯雨· 權容稷	후손 存植 顯模 運植	2책	4×6배판	1961
10	西溪集	慶州	李得胤	1553 ~1630	6세손 靜淵	洪爽周	靜淵	4/2	木活字	1833
11	禾谷集	光州	鄭賜湖	1553 ~1616	10세손 和用·和玉 (1897)	宋近洙 (1898)	和用·和玉 (1899)	4/2	活字	1899
12	霞隱集	高靈	申 涌	1560 ~1631	存植	申伯雨· 權容稷	후손 存植·顯模· 運植	2책	4×6배판	1961
13	蹈舞集	全義	李英吉	1563 ~1638	본인	본인	후손 鍾寬	不分 /1	筆寫影印	1984
14	瀆西集	慶州	李光胤	1564 ~1637	.	.	.	6/3	木板	1752 직후
15	竹窓集	晋州	姜 籊	1566 ~1650	子 栢年	鄭斗卿	許穆(1661)	10/2	木板	1654
16	碧梧遺稿	慶州	李時發	1569	자손	.	.	8/4	淨寫	미상

				~1626						
17	泰宇集	興陽	柳 活	1576 ~1641	11세손 제한	李家源 (1987)	제한	6/1	石板	1989
18	雷峰集	忠州	池德海	1583 ~1641	후손 益成 등	閔丙承· 宋炳耀 (1932)	후손 永源·益成 (1875)	3/1	木活字	1875
19	遯軒集	慶州	李弘有	1588 ~1671	8세손 匡榮	金洛鉉	匡榮	4/2	木活字	1890
20	德谷遺稿	密陽	朴廷龍	1599 ~1673	증손 致煥	·	申大來	不分 /1	石板	1980
21	琴巖文集	寶城	吳 燾	1602 ~1675	6세손 在瀚	·	·	4/1	筆寫	1853
22	主一齋集	坡平	尹承任	1603 ~1688	교우·제자	·	·	2/1	筆寫	戊辰年
23	晚洲遺集	南陽	洪錫箕	1606 ~1680	玄孫 天瑞	金鍾秀 (1793)	·	7/3	活字	1793
24	芷潭集	高靈	申得洪	1608 ~1653	8세손 弼求 등	李容九	·	6/3	木活字	1923
25	小山集	慶州	李萬憲	1622 ~ ?	후손 泌榮	9세족손 鍾澄	泌榮	2/1	活字	1922
26	休巖遺稿	密陽	朴世美	1631 ~1676	증손 致煥	·	堂姪 朴弼正 (1729)	不分 /1	石板	1980
27	韓溪遺稿	韓山	李秀彦	1636 ~1697	子 思孝·思悌 추정	·	·	3/3	筆寫	1806 이후
28	龍崖集	鵝州	申應泰	1643 ~1728	9세손 泰鮮	金成煥	泰鮮	4/1	活字	1968
29	竹軒集	高靈	申必淸	1647 ~1710	방손 哲雨· 10세손 建浩	申哲雨	建浩	8/2	石板	1972
30	晚隱遺稿	南陽	洪胄華	1660 ~1718	증손 宗善	宋煥箕	·	不分 /1	木活字	1802
31	忍齋集	高靈	申 灑	1662 ~1729	8세손 存植	李範圭	存植	2/1	石板	1968
32	癡堂遺稿	谷山	延最績	1663 ~1693	5세손 東煥	宋近洙	·	2/1	古活字	1871
33	巽齋集	密陽	朴致和	1680 ~1676	7세손 性洙	金潤東· 安學濬· 李壽源	性洙	3/1	石板	1975

34	雪嶽遺稿	忠州	池光翰	1695 ~1756	문인 孫昌運·朴新 運·宋命殷	·	7세손 현영 (1976-7)	不分 /1	筆寫	1977
35	栢峯集	全義	李弘濟	1722 ~1784	7대손 俊世	宋毅燮	朴魯重	3/2	木活字	1941
36	漢源遺稿	交河	盧 兢	1737 ~1790	6대손 載榮	李家源 (1975)	·	6/1	筆寫	1976
37	鶴沙集	高靈	申顯祿	1752 ~1828	5대손 存植	金奎洛 存植	·	不分 /1	石板	1965
38	耕山集	寶城	吳翼煥	1754 ~1797	벗 임상천 弟 학환	학환	·	1/1	筆寫影印	1797
39	疵菴集	韓山	李審度	1762 ~1808	5세손 尙馥	尙馥	·	5/1	筆寫影印	1995
40	仙谷遺稿	尙州	朴建中	1766 ~1841	5세손 蘊燮	鄭承憲	蘊燮(1989)	3/3	인쇄	1989
41	四愚齋集	高靈	申允模	1784 ~1853	현손 存植	金奎洛	현손 存植	不分 /1	石板	1964
42	耐軒遺稿	恩津	宋志洙	1793 ~1862	증손 在容	族孫 奎憲	在容(1934)	4/2	石板	1935
43	菊庵遺稿	高靈	申冕求	1795 ~1832	·	·	·	不分 /1	筆寫	미상
44	澹人集	高靈	申佐模	1799 ~1877	子 昇求	韓耆東	나현용	20/1 0	活字	1916
45	芝圃遺稿	鵝州	申光煥	1826 ~1909	·	·	·	4/1	活字	미상
46	小近齋集	順天	朴翼東	1827 ~1895	子 魯重	宋毅燮	魯重, 죽길 魯雲, 손자 夏圭	2/1	石板	1937
47	悔齋遺稿	仁川	蔡相學	1837 ~1926	子 世煥	黃鍾復 朴魯重	宋斌憲	3/2	木板	1933
48	晦堂遺稿	高靈	申冕休	1845 ~1933	조카 輒雨	申顯模 (1960)	·	2/2	筆寫	1960
49	石軒譚嚙	高靈	申昇求	1850 ~1932	증손 範植	·	·	8/1	影印	1993
50	蕙田集	安定	羅獻容	1851 ~1925	저자	자서	·	7/7	石板	1937
51	晚軒遺稿	鵝州	申相烈	1852	子 在英	宋斌憲	卞榮寅(1949)	2/1	影印	1982

92 역사와 담론 제79집

				~1911						
52	勇菴遺稿	安東	金思禹	1857 ~1907	손자德會· 明會 등	金世基	金世基	7/3	石板	1984
53	惺菴集	順天	朴靑淳	1858 ~1929	문인	.	.	20/6	石板	1952
54	小心齋遺稿	昌原	黃鍾復	1858 ~1935	子 信淵 동문김택술	蘇學奎	白南斗·金賢述	4/2	石板	1981
55	滄菴集	順天	朴魯重	1863 ~1945	후손 鍾五	同學權純 命	李瑩·朴時陽· 朴鍾述·崔敬洛 ·朴鍾九	4책	4×6배판	1962
56	苟堂集	高靈	申秉休	1863 ~1931	子 伯雨	.	伯雨	不分 /1	鉛活字	1973
57	澗松遺稿	坡平	尹榮教	1863 ~1945	子 在赫	在赫, 盧章愚	.	不分 /1	石板	1983
58	春溪集	廬山	宋毅燮	1865 ~1944	친족 宋哲鏞	동문林章 佑·蔡鎮斗	문인 朴性仲·金淵雷	12/5	石板	1969
59	素堂集	金海	金濟煥	1867 ~1916	문인 申天錫 등	.	申天錫·李鍾萬	9/5	木活字	1950
60	蘇眉遺稿	高靈	申轍雨	1868 ~1948	子 存植	申顯模 (1960) 權容稷 (1961)	存植(1961)	2/2	石板	1962
61	石齋集	河東	鄭斗鉉	1869 ~1940	子 해백	宋毅燮	林章佑	2/1		1962
62	定堂集	金海	金成煥	1875 ~1957	종계 鏞煥	.	申揚休·송공호	6/2	石板	1974
63	楠溪遺稿	高靈	申昌模	1876 ~1955	子 忠求	金潤東 安學濬	盧章愚	2/1	石板	1978
64	東谷遺稿	坡平	尹在赫	1888 ~1966	본인	申哲雨 (1983)	李禹寧(1983) 윤옥현(1983)	불분 /1	石板	1983
65	竹澗集	鵝州	申天錫	1889 ~1971	子 泰赫	동문蔡鎮 斗·申揚 休	.	4/2	石板	1974
66	松隱詩集	安定	羅相岳	1893 ~1979	子 문찬	.	.	1/1	洋裝	2002
67	退雲集	鵝州	申學錫	1894 ~1939	子 泰秀	金成煥 (1950)	金在懿	6/2	石板	1951

68	誠堂文集	昌寧	曹斗煥	1895 ~1952	子 圭憲	曹秉哲 (1994)	子 圭憲	2/ 2	影印	1995
69	湖雲逸稿	順天	朴鍾述	1898 ~1970	子 만순	李斗熙	.	不分 /1	洋裝	2006
70	友石稿	平山	申海澈	1900 ~1941	동학 金魯東	林翰周	子 一東	2/1	影印	1988
71	誠堂集	順天	朴象圭	1903 ~1962	종자 朴鍾五	權純命	崔敬洛·金淵雷	1/1	石板	1969
72	隱菴集	尙州	朴允燮	1904 ~1907	子 在完·在榮	朴性洙· 鄭祖憲	金聖煥(1981)	2/2	石板	1984
73	錦史文集	交河	盧章愚	1906 ~1992	子 載一	申哲雨· 盧熙貞	.	5/1	洋裝	1993

<참고문헌>

- 임동철 외, 『충청북도 지역의 문집해제』, 영동대학교호서문화연구소, 2016.
- 유탉일, 『영남지방출판문화논고』, 세종출판사, 2001.
- 고수연, 『1728년 무신란과 청주지역 사족 동향』, 충북대박사학위논문, 2008.
- 성대경, 「보수유생의 ‘자정론’과 외세대응양식-간재 전우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5, 1990.
- 유탉일, 「性齋先生文集 간행의 출판사회학적 분석」, 『한국민족문화』 3, 1990
- 신승운, 「유교사회의 출판문화-특히 조선시대 문집편찬과 간행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9, 2001.
- 이석린, 「창암 박노중의 생애와 학맥」, 『중원문화논총』 8, 2004.
- 설석규, 「조선시대 유교목판 제작 배경과 그 의미」, 『국학연구』 6, 2005.
- 최호석, 「옥소 문집의 서지적 고찰」, 『국제어문』 36, 2006.
-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의 문집간행 현황과 그 의미」, 『조선사연구』 16, 2007.
- 오항녕, 「尤菴 宋時烈 문집의 편찬과 간행」, 『한국사학보』 33, 2008.
- 김덕현, 「무이구곡과 조선시대 구곡경영」, 『안동학연구』 9, 2010.
- 김순희, 「李隅의 『松齋先生文集』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5, 2010.
- 황위주 외, 「일제강점기 전통지식인의 문집 간행 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 41, 2013.
- 김수진, 「朝鮮後期 文集刊行의 推移와 그 特徵」, 『어문연구』 41(3),

2013.

손계영, 「조선후기 영남 문집 목판본 간행의 확산 양상에 관한 연구-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2013.

정경훈, 「毅堂 朴世和의 文集과 文學 一考」, 『민족문화』 44, 2014.

고수연, 「16-17세기 이잠 이득윤 부자의 강학활동과 문인의 동향」, 『역사와 담론』 73, 2015.

김문식, 「규장각에 소장된 洪奭周의 필사본 문집」, 『규장각』 46, 2015.

<Abstract>

The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文集) by Figures in Cheongju(淸州地域) in Joseon(朝鮮時代) and Their Meanings

Ko, Su-yeon

“Collections of works”(文集) provide a collection of all the works of an author, thus claiming very high value as historical materials. It is thus a very important research task to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meanings of collections of works. This study thus set out to examine the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by 73 figures in the Cheongju area(淸州地域) in Joseon(朝鮮時代) and their meanings.

The authors were first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year of birth and then examined for their character. The results show that collections of works were published mainly by Igeo Sajok(移居士族) rather than Toseong(土姓) in Cheongju in the 15th century. An overwhelming percentage of 73 were born in the 19th century or later, and most of them belonged to the Noron line.

The authors were then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family name and examined in their nature. It was found that 30 families published a collection of works in Cheongju, and the Shin family of Goryeong(高靈申氏) in the Namin(南人) line left the most collections of works at 15. All of their collections of works were, however, published only in the 20th century. They were followed by the Park family of Suncheon(順天

朴氏) in the Noron(老論) line with six collections of works published. They all lived in the 19th or 20th century except for one, and all of their collections of works were published only in the 20th century, as well. The Park family of Milyang(密陽朴氏) in the Noron line published five collections of works, ranking in the third place. The members of the family were born and died in the relatively earlier 15th~17th century and started to publish a collection of works in the 17th century.

The collections of works published by the 73 figures were categorized by the periods to review their patter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started in the 17th century and that the figures in the Noron line published their collections of works main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The figures in the Namin line started to publish a collection of works during the Japanese rule with as high as 57.5% of their collections of works published after 1945.

The review results by the publication periods show that the years of compilation and publication were considerably later than the birth and death dates in most figures, which suggests that the original collections of works must have been lost in good parts befor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in many cases. Despite that, those collections of works contained a considerable amount of records about Cheongju and its figures, which led to the review of their content about the area.

There were many parts about Palgyeong(八景) and Gugok(九曲) that were considered as the essential elements of Sajok residence. The collections of works also provided detailed records about Seowon(書院) and Sawoo(祠宇) and also Nu(樓), Jeong(亭), and Dang(堂), which were representative spaces of local Sajok in Joseon. The collections of works also included records about many figures of loyalty and filial piety such as the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during Imjinwaeran(壬辰倭亂)

and the figures that adhered to their principles at the end of Joseon. A good number of collections of works also mentioned devoted daughters-in-laws, virtuous women, Gyehoi(契會), and Shihoi(詩會).

Taking a further step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collections of works that focused on the Yeongnam region(嶺南地域), the present study catalogued the collections of works of 73 figures in Cheongju, analyzed their content, and granted meanings to them, which ensures its significance. The study also demonstrated that the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by local figures presented a lot of implications for the local history(地域史). That is, the study reported that the character of figures that published a collection of works and the publication patterns of those collections by the periods coincided with the history of Cheongju. It was also found that the collections of works of figures in Cheongju contained the only diverse and detailed records as local research materials, which verifies the great importance and utilization value of collections of works as local materials.

Key words : Cheongju area(清州地域), collection of works(文集), Noron(老論), Namin(南人), local history(地域史), local history material(地域史 資料), Palgyeong(八景), Gugok(九曲), Gyehoi(契會), Shihoi(詩會)